夕刊 朝鮮日報

本紙特刊並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徐登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番地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成立을傳하는 日印會商

一

昨年九月以來 支離한會議를 거듭하야 屢次破綻의不可避까지를傳하든 日印會商도 年末과 한께 紛糾의幕을닷고 新春을마저 圓滿妥協의成立을 보리라고 傳한다。兩三日中 日印本會議를열어 全般問題에對한協定을決定을나리는同時 卽시條約案의作成을着手할터인즉 今月十五、六日頃은 假調印을行하게되려니와 假調印을기다리지안코라도 印棉不買中止問題關稅引下問題等은 곳實施케되리라고한다。그러나 去年十一月下旬에 잇서서도 二時妥協成立의消息을 傳한날이 업지안햇섯다。今番의 이消息도果然正確한것일까 아닐찌 아즉速斷을不許한다。本來日印會商의 根本問題로말하면印棉買付量과日本綿布輸出量에對한것과 또는綿布의品種決定과各品種間의 融通量決定의두가지로 여긔對하야는 印棉買付一百五十萬俵에對하야 日本綿布의輸出을四億平方야드로하고 綿布의品種을四種으로하야 各品種間의融通量을 全量의一割乃至 千萬平方야드로한다고 日本서 印度의主張을承認하얏다。이와 가튼日本의讓步를不拘하고 印度에서 한번더强硬한態度를보인것도 究竟取引上手段에不過하는것이라 日印會商은이마지난十一月에잇서 實質的成立을 意味하는것이니 今日의圓滿妥協은 반드시根據업는날이아니다。

二

일즉이本欄에서 우리가指摘한바와가치 極東問題에對하야 가장注目을이루는것은 英國이다。더욱이 米蘇의接近을딸아 日本對米蘇의關係가 재미롭지 못할사록 英國의態度는 注目을밧지아니치못한다。勿論印度를爲始해 各英領에서는 스탈링블럭의 守護를爲하야 日本商品에對한關稅引上乃至條約破棄를 行하기까지이르다고하지만 또 南아메리카를爲始해 各地에서는 英國의旣得權을 擁護키爲하야米國의侵入을 防禦하지안하면 안된다。要컨대英國은日本에 對하야 반드시利害의一致를가지지못하지만 米國에對하야도 決코그만못지안한對立을 이루는것이다。滿洲事變이일어난以後英國의態度는 그것을잘證明하는것이아니엇드냐? 어느때는 日本의立場을支持하다고認定하야 中國을누르고또 어느때는 米國의 意向을딸아 그反對의行動도取하얏다。今後日本對米蘇關係에對하야 英國은果然어떠한態度를 取하겟는가? 米國에서도 그것을關心하지안는바아니로되 日本으로서도 相當한關心을가지지안할수업다。티구나國防의一元을 廣田外相이 全面的讓步를行하야가며 日印會商의成立을꾀하는그本意도오로지 여긔잇슬것이아니랴? 그러나老獪한英國은 이미日本의그氣色을눈치채엿다。그래서日本에向하야 다시以上의讓步를要求하얏든것이다。

三

지금까지 비교한바에依하면 協定初年度數量으로말하면 同一年度에잇서서 一月로부터十二月까지이르는동안棉花數量과四月로부터翌年三月에이르는동안의 綿布數量으로써서로때지게되얏다。그러고今年一月로부터四月까지에 이르는동안 綿布數量은 昨年度棉花數量 百二十萬俵로잡고 거긔相應한綿布數量은 三億四百三十萬平方야드로처서 그十二分의三에該當한 九百五十八十萬平方야드가된다고한다。이것은애초부터日本이主張하든바인데 印度에서는 自國案을撤棄하고 日本案을追從한모양이다。强硬한態度로나아오든印度에서 엇지하야이와가튼讓步를行하게되얏는지는 아즉모르나 日本이日印會商을成立시기기爲해 꼿꼿내努力해온것은 틀림업는事實이다。

米國大統領의教書 全世界注視裡發表

나라運動通貨政策動向指示 內容은自畫自讚에終始

【聯合워싱톤二日發】來三日開會되는 第七十三議會第二會期에對한 루-즈벨트大統領의教書는 產業復興運動及通貨政策 今後의動向을示하는것으로 全世界의注意를惹起하고잇든바 루-즈벨트大統領은 三日正午부터開會된第七十三通常議會에親히臨席하야 議會致書에잇서서다음과가티말하엿다

教書內容

一、金의『오페레이순』政策의成功에依하야從來보다良好한通貨狀態에到達한것

一、他諸國과의間에는 通貨政策上種種의『핸듸캡』이 잇서 國際的發展은아즉 그實現을期待할수 업는것

一、銀行打開의 促進에依하야 國內金融이 圓滑되여 財界를蘇生식힌것

一、產業復興計劃이 着着進捗하야 產業界는獨占을許치안음과同時에 熾烈한競爭도阻止되게되야 弊害를猶來할事端이排除된것

一、數百萬의失業者가就業하야勞銀支拂이良好하된것

一、生產消費의 밸넌쓰가農產調節計劃에 依하야生產이維持되야 物價維持引上에良好한影響을 波及한것

一、領土擴張及內政干涉은아메리카政府의가장避하려하는것임을汎米會議에서近隣諸國에잘 理解식힌것

一、歐洲의 國際關係에는干與치안는傳統을 守하나低關稅及軍縮即行等에就하야는恒常協力의用意가잇는것

一、아메리카가 그國內의大改革을 平和的으로 또迅速的으로 또滿足하게遂行한것은 가장欣幸으로 녀이는바이나 今後그의完成을爲하야立法、行政、司法三機關의協力一致를 必要로하는것

英伊兩相會談

軍縮問題에는意見一致

【聯合로마三日發】로마에到着한 사이몬英國外相은 三日午後 前後二時間에至하야 뭇소리니 首相과 會議하고國際聯盟改造問題 歐洲各國의最重要問題 軍縮事業打開問題等에關하야 意見의交換을하얏다 右會談後發表된公式콤뮤니케는 이會談은매우友好的이엇섯다고 述하는바 確聞하건대 聯盟改造問題에對하야는 뭇소리니首相으로부터 伊太利側의 聯盟改造原則을說하야 兩者間에基礎的으로意見의 交換을하얏다 또軍縮問題에 關하야는 英伊兩國의意見은 매우類似한바가 잇는것이 判明한模樣인바 伊太利側은 技術的 軍縮問題보다차라리 벨사이유平和條約의 人爲的 不調和에 主로서注意를集中한것이 分明하게되엇다 뭇소리니首相 사이몬外相과는 다시 四日再會할 豫定인바 他方 注目되는것은『파시스트』系新聞『라보로、파시스트』紙는 聯盟改造問題에關하야 如左한一文을揭載한것이다 國際聯盟改造에는 英帝國과 各邦이 旣成한 諸原則에依할것이라는 提案은 英國側이 一九一九年 佛國에提議한것인바 吾人은 이에贊成이다

큐바大統領

緊急法令을公布

【電通하바나二日發】革命에 終始한一九三三年를作別한孜馬國서는 四月二十二日議會의總選擧를行하야 國政의一新를圖하기로되야 二日산말리크大統領은左와如한緊急令을 公布하엿다 新議會는五月二十日召集되야 新憲法을起草한다 그리고余는그때에 大統領의 地位를退하려하며辭職한뒤에는 如何한地位에도就任치안으리라한다

압갈이어지될가

갈팡질팡半個年에겨우이길(日本案)로드러서기는하엿스나 압갈(正式會議)에서도 參者의讓步는繼續될는지

日印通商新協定

五日에正式決定 有効期間은三個年

【聯合뢍란二日發】去九月下旬심라第一回會商以來 前後四個月에 日印會商도最後의難關인初年度綿布輸入制限問題도落着되고 初年度上半期의最高輸入量을二億碼로限定하야 綿布輸入의均衡을圖하라는 印度政府의修正案은 二日私的會商에서日本政府가承認한結果 日印通商協定은 玆에實質的으로成立하게되엿다 綿布輸出統制實施上細目에 對하여도이미日印兩代表當局에條件이成立되엇고 撤協定案의起草도完了에가까운곳까지進展되엿슴으로 今後一兩日中에 一切의懸案은解決되여 五日本會議를 開催하고正式決定하게되리라고豫想된다 그리고印棉不買撤回、輸入制限制實施等은 八日頃부터一齊히開始되리라고觀測된다 新協定의有效期間은四月一日부터 始作되는會計年度부터 三個年으로規定되여잇고 더욱綿布制限統制實施日부터四月까지의 期間을加算하면 實際上三個年三月에가갑게된다

實質的으로는 日印條約改訂

【電通델리三日發】昨年中에重要問題의 討議를終了하고아직正式으로는 決定치못하엿든바大綱은 이미決定한 日印會商은新年勞頭에 最後的正式決定을目標로 細目討議를開始하엿다 即澤田代表는 二日午後六時印度代表史아商務長官을私邸에訪問하고

一、協定의實施期間
一、統制實行方法
一、統制의監督

等協定實施에當하야 必要타認定하는 各項目에對하야 具體的協議를行한바當分이에關한協議가 아직繼續될터이다 그細目은 모도將來條約의 一項目으로包含식힐 性質의것임으로 實質的으로는 이미日印條約改訂準備에入한것이라고觀測된다

決定된細目要點

【電通델리四日發】二日 三日兩日의日印兩代表 私的會見並 專門委員會에서決定한細目의 主要點은 모다大略日本의意向대로協定되엇다

一、綿布의定數量
二、綿布輸出統制의具體的方法
三、綿布再輸出의 境遇와處置

右第三點의 再輸出品에對하야는 印度側이 責任으로써 公正한 調査를하야 日本에通告하기로되엇다 그리고今日까지 매우 强硬한 態度를 固執하얏은 印度側은 最後에이르러意外로簡單히 讓步한것은最後에잇서서 日本側에게 體面을보아주는것보다도 印度側에種種의弱點을가진때문이라고한다

福建省境의中央軍 十九路軍에게慘敗

共產軍에挾擊되야劉軍全滅

泰順慶元兩地方拋棄

【電通上海三日發】今日浙江保安隊長의名義로써 發表된바에依하면 福建省境의中央軍은第十九路軍에게 壓迫되여 드듸여泰順、慶元을抛棄하고泰順、慶元을貫通한線으로부터 數哩를隔한北方에、堅固한防禦軍을 設하고 最後의十九路軍을 防止하려하고잇다 그리고中國消息에依하면 劉和鼎이가引率한中央軍三十七師軍은建陽、建甌方面의戰鬪에서 第十九路軍과共產軍이 挾擊을蒙하야慘敗하엿고全軍은 거이全滅狀態로 劉는겨우福州로부터 日本汽船으로上海로逃避하엿다고한다

【聯合上海三日發】杭州來電에依하면 警備司令兪濟時氏는 三日泰順陷落과慶元放棄를公式으로發表하엿다

劉桂堂軍 北平附近에迫到

【聯合北平三日發】高麗營順義等을襲擊하면서 南下한劉桂堂軍은二日夜北平城外四哩되는地點에達하야 通州鐵道를橫斷하려하다가三日拂曉부터衝擊軍과激鬪하는中이다 但劉桂堂自身은目下順義에잇서後續部隊와가치南下하려고準備하는中이다

貴族院改廢問題 結局有耶無耶

【電通東京電話】貴族院에서는 第六十五議會에 臨함에當하야 近衛松平正副議長의 就任을 機會로 從來의 制度慣行이 新時代에 適應치 안은것이 안음을 認定하고 이의改廢를 斷行하고저 貴族院各派交涉會를開하고 協議하얏는데 第一回會合에서는 何等具體的인 決定도업고 다시各派에서 研究調查하기로되엇다 德川議長 在職三十年間에는 往往 議長專斷의案件도잇고이에對한反感도 노파年來의積弊를一掃하고저 그根本意見에잇어서는 各派가期치안코 意見이一致하얏다 就中動議議員團의特別委員等의 人選은되도록 人物本位로하고 또委員會에는 新聞記者를 列席케하야 審議의內容을 公開하야 立憲政治에對한態度를 極히公正 且明朗히하야貴族院의 信用을增進케할것이라는 意見이有力하다 그러나 아무래도現在의 貴族院은有爵議員이 壓倒的努力을 가지고 研究會公正會의 有爵議員이 動치안는限如何한制度改廢의際도 實行 不可能이므로現狀으로는 有爵議員 등의 積極的參加는求할수업슴으로貴族院의政治的殿堂을開放하야審議를밝고 正當하게立憲政治의運用을期하기는 不可能한狀態이므로이制度改廢의際도結局은有耶無耶에終할것으로觀測되다

今日本紙八面

南京政府大改革?

胡閻馮張等入閣식혀 蔣汪의勢力抹殺企圖

孫科與張學良策謀

【電通上海三日發】目下香港에서 胡漢民氏와會見中이든孫科氏는 張學良이 搭乘한 佛國汽船에 同船하고 八日上海에 來着하기로 되엿다 孫科氏는 政府改革案으로 胡漢民、閻錫山、馮玉祥、張學良等諸氏를 入閣식혀 中央國防委員會와 警備委員會를 設하고그들을 그 委員會에 任命하야 全國團結을 圖하는 同時에 蔣介石氏의 軍事獨裁를抑制하고 또 警備委員會에 對하여는 中央政治會議보다도廣大한 權限을 與하야 目下中央政治會議에 多數殘存하여잇는 汪精衛、蔣介石派의 勢力을 抹殺하려는 案을 갓고잇다 孫科、張學良의歸國後 一月八日 第四次 中央全體會議와 同時에 南京政府는 드듸어 一大改造를 實現하려하고 잇다

議會再開압두고

政友質問陣整備

【聯合東京電話】第六十五議會의 休會再開劈頭 齋藤首相의 施政方針演說 廣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 高橋藏相의 財政方針演說이잇고 이에對하야 貴衆兩院이 一齊히 質問戰을 開始하야 政戰이 展開되게되엇으므로 政友會에서는 質問陣을 講究中인바 이質問에잇서서는 單純히 政府의施設에 對하야 質問할뿐아니라 議會를通하야 國民에게對하야 政友會가 現下의 時局에 如何한 態度를 取하려 하는가를 判然 認識케하기 爲하야 有力한 首腦者를 세워 內政經濟 金融農村問題 產業時局匡救 外交 及軍事敎育、思想、社會不安의 一切에 關하야 徹底的 政府의 所信을質問하야 黨의 具體的方針을 明瞭히하고 다시 豫算總會 其他의 委員會에서도 右方針에 基하야 細目에 對하야 質問하고 이에對하야 政府의 態度如何에 依하야 어데까지든지 政策本位에 立脚하야 國民生活에 卽한 問題를 가지고 政府에 肉迫하기로될模樣인바 少壯派中에는 黨의態度를 反政府로 導하려하는空氣와 政黨連繫에 依하야 政府로하여금 農村對策 其他時局에適한 政策을 徹底的으로實行케하려하는 空氣가잇서此等의 發展如何에 依하여는重大한局面이 展開되리라고도限치안하므로 今議會에서의 政友會의 態度는매우注目된다

八面錄

◇孜馬大統領、教書를發하야曰 來五月新議會成立後憲法만改正되면、自己는下野하겟다고

◇內亂으로도 中國과治似하거니와、下野通電式까지달머가자는말인가。

◇또하나教書、米大統領曰、昨年中政府의 한일은通貨政策을爲始하야모다 成功햇다고

◇新年勞頭라、自畫自讚쯤을失手라할수는업지만、共和黨때들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고。

◇正月도三日이지낫다、屬蘇酒가깨일만하닛가、또政友가엇더니、民政이엇더니、議會싸움 消息이들닌다。

◇三百의議員을가지고도、非常時라는 그들에서 콩나물노릇을하는代議士가、잔말이무슨잔말일고。

一年之計는元旦에잇다

本年은조흔講義錄으로工夫하라

自宅을學校로 겨우一個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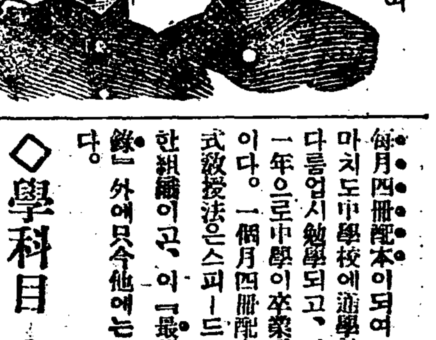
中學을卒業한다

東京의中學校가全鮮의獨學青少年에게로出張하야가르친다

▲어데보다卒業이第一速하고
▲어데보다學費가第一싸고
▲內容이大端히새롭고알기쉽다

中學講義錄도世上에여러가지잇스나—

우리들은斷然이講義錄으로作定하얏습니다



◇普通學校 만을나온분은全鮮中에몃萬이잇스나、不幸이도家庭의事情으로上級學校에못가고、곳實社會에나오는사람과、家事를도와주는분도만타 이러케有爲한靑年이、普通學校以上의工夫를못하고、故然히날을보낸다함은、本人을爲해서뿐아니라、新興日本을爲해서도슬흔일이다。

◇今日의 實社會서成功함에는참말이지、普通學校뿐의學力으로는充分치못하다、아무리해도中學卒業程度의知識을頭腦에넛치못하면、生活까지도不安하다。官吏가됨에도、官界學校에드러감에도中學卒業의學力을必要로한다、實業家가됨에도、藝術家가됨에도、어쨋든中學卒業의學力이업시는決코大成치못한다。

◇더욱히 家庭의境遇로中學에通學치못하고、希望에불타며、煩悶하고잇는사람은 어떠케하면、조흘가、그에는이번새로히 文部省改正中學校令에依하야된 大日本通信中學校의『最新中學講義錄』을읽는것이가장조타。中學講義錄은世上에만히잇스나、이文部省改正中學令에依하야最新의學校組織으로겨우一年의特急스피-드로뿔이中學을卒業식히는것은、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는업다。

◇學科目 은左記와가티中學正科를全部網羅하야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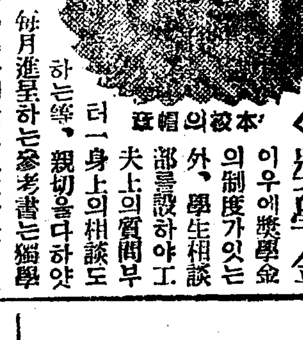
▲修身 ▲英文讀 ▲幾何
▲公民科 ▲英文法 ▲三角
▲國語 ▲英作文 ▲博物
▲漢文 ▲英習字 ▲物理
▲作文 ▲歷史 ▲化學
▲習字 ▲地理 ▲農業
▲文法 ▲算術 ▲工業
▲圖畫 ▲代數 ▲體育

各科의講師는實際로中學校專門學校의先生뿐으로實際敎育의體驗에서講義는平易하며親切、누구나알수잇고、各卷이다鮮明한插繪寫眞標本圖를만히너허서全혀滋味잇시숨술히工夫된다。

每月四冊配本이되여 自宅에서마치도中學校에通學함과조곰도다름업시勉學되고、더욱이겨우一年으로中學이卒業된다는組織이다。一個月四冊配本한다는新式敎授法은스피-드時代에適切한組織이고、이『最新中學講義錄』外에只今他에는 絕對로업다。

◇學費는 一個月分壹圓◆六個月分五圓六拾錢◆卒業까지十二個月分拾圓八拾錢、講義錄二冊機關紙一冊、參考書一冊計四冊을每月四回보내여一圓이라는것은、참으로學費에惠擇이업는獨學者를爲하야奉仕的廉價가아니고무엇일까

◇獎學金 이우에獎學金의制度가잇는外、學生相談部를設하야工夫上의質問부터一身上의相談도하는等、親切을다하얏다。每月進呈하는參考書는獨學者가心得하지안으면안될立身出世의案內書뿐으로、이것만으로도學費의價値는充分히잇다


本校의帽章

新學期開始 學生大募集

◇入學하면 每月二冊式올용한講義錄을配本하야、따로趣味만흔機關誌一冊과特히有益한參考書一冊을配本함으로、

全鮮의獨學靑少年諸君이여、一年之計는元旦에잇다。只今곳躊躇업시이『最新中學講義錄』에入學하야今年만은充分學力을練磨하야 將來立身의基礎를만드러주시오。

獨學立身 案內書つき 見本無代進呈

葉書로『最新中學講義錄見本入用』이라고써서左記로寄別하면一冊。無代進呈하오

—이저버리면後悔할때가잇습니다入學하고안하는것은나종일이오見本만이라도꼭보아주시오—

東京市小石川表町十七
大日本通信中學校

謹賀新年

天安

天安邑內里 耳鼻咽喉科 外科 其他一般科 天和醫院 徐光璧

天安邑內里 春洋會

天安驛前 天安自動車運輸株式會社

天安本町 東亞洋靴店 金昌國

天安邑內里 京南洋服店 李達鍾

天安驛前 天一洋服店 文俊楠

天安邑內里 東一銀行天安支店

天安邑內里 京南鐵道株式會社

天安邑內里 合資會社 永天堂藥房 代表者 方禹鏞

天安邑內里 大興木工場 李龍雨

天安市場 共濟社天安支店 支社長 趙貴用

天安驛前 三湖旅館 許權

天安本町 文化洋服店 柳寅燦

天安市場 天安館 李桂花

天安市場 明月屋 崔山玉

天安郡廳職員一同

天安邑內里 金聖培

洪川

洪川郡南面事務所職員一同 面長 朴冕鍵 李甲榮 張得峰 李光善 李殷春 趙鳳朝 李瓔柱

洪川郡南面有志一同 朴燦學 林準憲 姜大奎 蔡洙哲 李東根

洪川郡南面明德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校長 李瓚柱 沈賢澤 吳贊國

洪川郡南面三德幼稚園 職員一同 園長 金慶澤 李桂順 李淑仁

洪川郡南面警察官駐在所 主任 白水泰次郎 方浩榮 李鳳乙

洪川郡南面 廣濟醫院 醫生 朴永達

洪川郡南面陽德釀造所 職員一同 主任 李東珣 專務 李燮 會計 金鳳男

洪川郡南面 陽春館料理屋 主任 宋順子

洪川郡南面金融組合支所 職員一同 理事 韓明洙

全日本學生 氷上選手權을 朝鮮人이 完全制覇

全體四種目競技를通하야 崔金兩君의快績!

신춘벽두에 들녀오는 스포ー츠계의소식은 조선인선수로서 만장의기염을 뽑내게한 대서특필할뉴스를 동경전보는전한다 그는현재 동경에유학하고잇는 최룡진(崔龍振)김정연(金正淵)양군이 전일본학생빙상경긔대회(全日本學生氷上競技大會)에출전하야저곳에강호를단숨에제치고 당당한일본신기록으로 네종목을통하야 우승을하엿다는것이다 최군은신의주고보 시대부터 그의특기를세상에널리 알키우게하엿스며 이번오백미 결승에 사십칠초구란 일본신기록으로우승을한것과 천오백미에 역시신기록으로 영예의일착을 하엿다그리고김군은평양고보에잇슬때에는련광구락부선수로서장래가촉망되든바최군과함께명대예과(明大豫科)에입학한후사기에정진하야드디여오천미와일만미에 무난히 패권을잡게되니전부 사종목밧게업는『스피ー드스케ー팅』중에서 최김량군이모조리 패권을차지하게되엿다 이리하야 반도건아들의 면목을치장하얏다

최김량군이 빙상제패의 뜻을 이루기까지의 부단의 노력은상상이상의것이엿다 량군은 명대에입학한후 즉시 동교빙상부에입부하고 귀국의혜택을 입지못하는동경에서도 실제로 어름을타지못하면서 륙지에서 준비운동을 꾸준히하야 오늘의영예의목표로 저전의정진을 거듭해왓다고하는바 근년에이르러 조선인선수로 각방면 운동부문마다상당히활약하야때마다쾌한소식을전해주든중에도이번과가티한부문의운동경긔에서전종목을통한선수권을모조리조선인선수가차지하엿다고함은전일에잇서서는상상도못할일로서빙상조선의지반을미덥게만든동시에압날의큰영예를더욱굿게약속하여준다(寫眞上은金正淵君下는崔龍振君)

大邱『ㄱ黨事件 文相直氏出獄

【大邱】 일시세인의이목을충동식혓든대구『ㄱ당사건의수모자로 지난소화삼년 검거되이래대구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 고령(高靈)의문상직(文相直)(四二)은 이십구일아츰 아홉시반에오년여의 형긔를마치고 무사히출옥되엿슴 아소식을듯고 그의고향으로부터 수십명의 친척과지우들이 차저와 옥문전에서오래간만에서로대하는희비(喜悲)교차의 극적『씬』을 연출하엿다 향리에는 녀로한그의량친과 안해가 홀로기다리고잇는바 이제그의지내온 경로를보건대 대정팔년 긔미운동직후에 대구폭탄사건(爆彈事件)으로오년간징역하고 출옥하자 다시제일차공산당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년륙개월을 복역하고 출옥되자다시 그해에 또대구『ㄱ당사건으로 오년을 복역하여 전후십여년동안의 옥중생활로 오늘에 이른것이다대구부내상서정삼천려관(三千旅館)에들은다음과가티말한다

오년간의 철창생활이 엿습니다마는 공장에서 놀로동을하엿기때문에 건강에는 별손실이업습니다 금후에 대해서는 우선 농촌가서몸이나 잘휴양할생각밧게업습니다그런다음에다시 압일을 생각하게되겟습니다 삼십일에고향에돌아갓다 (사진은출옥한문상직)

前科者家族가진 薄命職工의悲哀

동리사람비방밧고설원코저방화

누가그를그러케만드럿나?

누가그를 그러케만들엇나? 자긔는 전매국직공으로 일년을하루가티 동근하면서 남못하지안케 회사측의신용이나 직공간의 애정을 바드면서도 아버지와형과아우가 전과자라는 관계로인하야 동리사람들에게 박해를밧다못해 동리사람의집에 불을노하 원수를갑호려다가 마음대로일우지못하고 경찰서에 구속되여 눈물겨게취조를밧고잇는 청년이잇스니 누가그를 그러케만드럿나? 그는 고양군룡강면공덕리(高陽郡龍江面孔德里)삼백륙십구번지사는허경학(許景學)으로 열아홉살때에 전매국에취직하야 그날 그날의 직공생활을 부즈런히 계속하야 회사측의 신임을바들뿐더러 직공간에도 부즈런하기로 유명하야남보기에는 자미잇는 생활을하고잇는것갓기도 하엿스나 그의생활리면에는 참으로 우리가추상할수업는 눈물엉킨 번민이잇섯다 그의아버지허찬(許燦)은 공갈(恐喝)죄의 전과가잇고 형경만(景萬)은 무전취식으로 전과일범이고 그의아우 경인(景仁)은 절도사긔로 전과삼범이잇슴으로 동리사람들은 경학이의집을 감옥소특허국(監獄所特許局)이니 도적놈의가정이라는등 비난과 박해가만홈으로 처음에는 우리가정이사실상 그러닛가 동리사람도 무리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차차로신용을 회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백방으로 신용회복에 로력하엿스나날이 갈수록박해가더욱 심함으로마침내 분통을 참지 못하야 지난이일오전두시 사실분경 석낭가치로갓든동리 최승무(崔承武)의 집초가집웅에 불을노흐려다가 미행하든 경관에게발견되여 목적을일우지 못하고 목하룡산서에서 구속취조를 밧고잇다취조에 딸하 그는 전후네번이나불을노호려다가 실패하엿다는 사실을자백하얏으며 취조경관도 그의불우한 가정형편에는 동정을마지안는다고한다

坑夫百六十名 一時에生埋

【電通】푸라ー그三日發 『엘츠게●빌게』산록(山麓)의 도시 『오석크』부근에잇는탄광 제삼갱구(坑口)가묻어저서 일백십륙명의항부가 매몰되여 그속에네명은간신히피신하고 열명은 구조되엿스나 모다와사중독으로 중태이다사체는 넷밧게못끄내스며 남어지 매몰인부는모다 절망상태이다

京仁『뻐쓰』社 從業員結束

京鐵進●● 陳情決議

경인(京仁)뻐쓰를경영하는회사로 매도하는문제로 권리명의

大同江에凍死

【平壤】 일월일일밤대동교북편(大同橋北便)이백『미돌』가량되는 대동강빙상에는 년령사십세전후되여보히는 남자가 얼어죽엇다 아직신원은 판명치 안엇스나술이취하여 대동강빙상을 건너오든중어름우에 누워자다가 그대로얼어죽은듯하다고한다

天氣豫報

西風晴

七八○미리高氣壓은北中國에잇다 氣壓은朝鮮을經하야日本方面으로低下되여잇다南西岸은曇天이요其他는日氣가조타 北風이불고치위질것이다 明日도日氣는조코치위는繼續

昨日最高 零下 六、一
最低 同 一一、三
本日正午 同 八、五

暴風警報

四日午前九時仁川觀測所發 高氣壓에伴한季節風으로 北西風이强하고 氣溫急降할것 朝鮮中部沿岸을警戒함

運動競技

堂堂日本新記錄 崔金兩君이優勝

全種目選手權을獲得 全日本學生氷上大會서

【東京日光電話】 第九回全日本大學高專門學校氷上大會『스피ー드競技』第二日은三日午後一時부터 細尾링크에서五百米決勝으로 開始되엿다 早大의不振에反하야 明大는始終壓倒的優勢를 보이며 崔龍振君(新義州高普出身)은 前日千五百米에快勝한뒤를니어 五百米에는 四十七秒九의大記錄을作成하야全日本公認記錄四十八秒를 보기좃케 突破하고 優勝하엿스며金正淵君 (平壤高普出身)은 五千米決勝에 九分三十一秒의日本學生新記錄으로 優勝하엿다 그리고 金君은一萬米決勝에도 當然諸强을제처고一着되엿다(記錄未詳) 이리하야 日本氷上界는 朝鮮學生의獨舞臺를이루고잇다 當日의成績은 아래와갓다

◇五百米決勝 ▲1崔龍振(明大) 47秒9 (日本新記錄) ▲2渡英(明大)49秒▲3大澤●柴山(兩名早大)

◇五千米決勝▲1金正淵(明大)9分31秒 (日本學生新記錄) ▲2矢崎(明大) 9分40秒 ▲3寺尾(明大) ▲4羽田(早大)

◇二千米리레ー決勝 ▲1明大팀 (矢崎·金正淵·崔龍根·濱●) 3分18秒 (日本新記錄) ▲2早大 3分34秒2 ▲3慶應 3分41秒6

◇一萬米決勝 ▲1金正淵(明大)以下記錄未詳

◇各팀總得點 ▲明大62 ▲早大24 ▲慶應7 ▲立敎3

日本東西럭비 早大對同志社 8-8로無勝負

【電通東京電話】 今사一솟日本럭비界의覇權을決하는 東西의雄早大對同志社大學럭비試合은 三日午後二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行한바 드디여八對八無勝負로마치엇다

早大8(8-0/0-8)8同大

中等럭비ー 京師二勝 對京都一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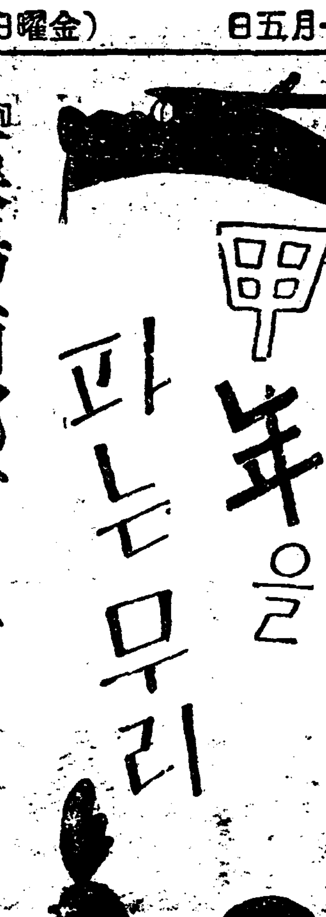
【電通大阪電話】 全日本中等學校럭비ー第二回戰 朝鮮代表京城師範對 東海代表京都一商試合은 三日午後一時二十分부터 甲子園에서開始한바 十六對○으로 京師快勝하엿다

京師16(13-0/3-0)0京都

破記錄的年賀郵便 四千萬通을突破

◇昨年보담一割二分이激增 全朝鮮內受發總決算

근년에 드문조흔경긔를 보인금년의년하장(年賀狀)도전조선의 통계를 총괄적으로 살펴면십이월삼십일일까지의 도착수가이천일백사만칠천통으로 일일조에 배달된것은 일천팔백구십오만구천통으로발착(發着)이합께 약사천만통의 대량에달하야 작년보다 일할이분의 격증을보엿는데 그중에도 조선인측에서 발송된 년하장이 더욱현저히증가한것은 차츰이중과세를 해탈하야가는 조선인사회의 한경향을 보여주는것이라하며 경성부내에서는인수(引受)사백오십이만오천통배달삼백칠십사만삼천통으로전년의그것보다인수에 일할삼분과배달에이할의증가를보엿고다음으로는부산(釜山)인데 인수가구분 배달이 일할사분평양은 인수일할구분 배달일할삼분의증가를각각보엿다



『漢陽南郊百里에 鷄犬聲이頓絶!』

橫說竪說은偶發得中句도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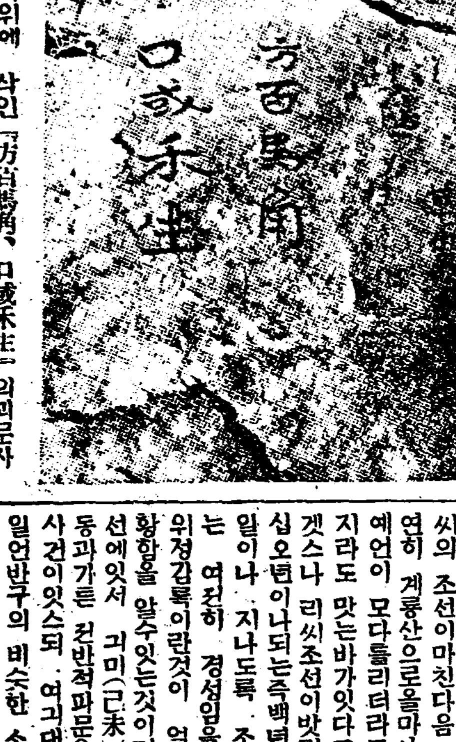
所謂鄭鑑錄의正體解剖 (五)

또 좌흑으로안성죽산사이에 사체가산것고려주광주사이에 사람그림자가 끈치고 수원당진간에 피가흘러내가 되여한양남쪽백리에 계견조차그림자가 업다함은 더욱이허황하니 한국말엽에 한양남쪽에서 동학당의란과 의병(義兵)의란이 잇섯스되 피가흘러 내가되기는 고사하고 단백명의 사상을내일만한 큰전투도업섯고 만일 구구히 이것을대인다면 갑오을미년의 일청전쟁때 아산만(牙山灣)의전투와 성환역(成歡驛)의 교전이 다소잇섯스나 조선사람주민에게 무슨영향이잇서 계견이끈치고 인영이감추어진것이 업섯다 그리고 한강이사흘홍붉게흐리고 검은안개가 사흘을덥는다는것도 전혀업섯스니 한강이붉게흐리기는 해마다 언제이고여름에 큰비가와서 상류지방에홍수가나면 북덕물 내미는것은리씨말년뿐이아니라 천지가생긴이래이날이때까지어느나라어느임군때이고잇는일이니 유독히

한 강뿐이아니라 애급(埃及)의『나일』하(河)이나독일의『라인』강이나남미(南米)의『아마손』하(河)이나중국의양자강(揚子江)이나어느강어느물이다그런것이며 그중에도 중국의황하(黃河)와가튼곳은개벽이래로황토층(黃土層)이그류역(流域)인까닭에 맑은물이 단하루라도흘러본적이업는곳도잇스니 강물의청탁이 시국에 아모관계가업슴은 삼척동자라도 알일이며 리씨의운수가 삼백년이라고 하얏다가 또다른데가서는 사백년이라고 하얏다가 또어더서는오백년이라고하야 그년대에대한것이 하나도가튼바가업는데 실지로말한다면륭희(隆熙)사년에 합방을 하얏슨즉 리씨의조선은 이십칠대국왕에오백십구년만에 그친것이니 첫재 거긔에모순이 극히심하며 곤룡에서 곽장군이오고 배장군이와서 정씨를위하야

평 저한다고하얏는데 실제한양말년에는금의대장 (禁義大將)이나 어영대장(御營大將)은고만두고포도대장(捕盜大將)하나도곽씨배씨업섯고 직제를 변경한후로도 군부대신의자에 곽씨의방석이 깔려본적이 업섯스며 리씨의 조정은 박씨의손에마친다하얏스되 합방조약에는 조선대신의 대표로박씨가 먼저쓰인일이 업슬뿐외라 리씨다음에 드러서야만할 주인이라는 정작정씨는 하나도업섯다 그러면그것들은 다그러하다고 다시한번 백보를 미루어주고보더라도 리씨의 조선이마친다음 도읍은당연히 계룡산으로옴마야 그들의 예언이 모다틀리더라도 단한가지라도 맛는바가잇다고 할것이겟스나 리씨조선이밧귀인지 이십오년이나되는즉백년의사분지일이나 지나도록 조선의수도는 여전히 경성임을보면 소위정감록이란것이 얼마나 허황함을 알수잇는것이며 근세조선에잇서 긔미(己未)년만세운동과가튼 전반적파문을 이르킨사건이잇스되 여긔대하야서는 일언반구의 비슷한 소리도업슴을보아 더욱그맹랑함을 짐작할것이다 더욱이우수운것은 우에소개한 리경윤의 동차결을보면 정씨가 무오(戊午)생이라고 하얏스니 만일 그것이사실이라면

정 씨는지나간대정칠년무오생이라면열일곱살밧게아니되엿스니 동양의당태종(唐太宗)리세민(李世民)도열아홉에비로소 진지에나아갓고서양의『한니발』이나『알렉산더ー』도이십이후에야 비로소용병을하얏고 열일곱살에 용병하여 본영웅이업섯스며 설사그럴수가 잇다고한다하여도 리씨조선이 마치기는소위새주인이란 정씨가 나기전 여덜해이니 크나적으나 한나라는고사하고 조그마한 물건이기로니 여덜해후에 장차생겨날인물측 그당시에는 실재하지아니한 허공적인간이 력사를거슬려 소유권을차지한다는것은도저히 꿈에도 꾸어볼수업는일이며 다시또 백보를사양하야 먼저번무오생이라고한다면그소위정씨라는인간금년에 일곱살이라야 할것이니 정신과정력이아울러 강한청년사람도 다제처노코로혼한로인이 창업을 한다는것은바눌구멍으로 약대가 나아갈수업는것과 꼭마찬가지이다



◇사진은계룡산바위에 삭인『方百馬角、口或禾生』의괴문자이니 민중들속이는 무리들은이것이경술국이(庚戌國移)라는뜻이라고 크게왜치는것이다 이와가튼것들을삭여 노은것도몰론그자들종류의 계획적음모일것이다

醜戀의伏魔殿된 『不在牧師』의家庭

십년동안은혜를닙든서생이 夫人과共謀코預金을詐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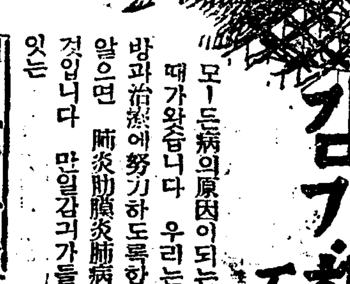
『불타는신앙』을한조각배에실고멀리태평양의 거친물결을 건너『하와이』(布哇)라는낫선곳에가잇는 부재목사(不在牧師)의 가정에 이러난기괴한사건이잇다 사건의가엽슨 희생자는방금『호놀루루』에잇는조선인자치교회에 봉직하고잇는 안상호(安尙鎬)(假名)목사다 씨는 십년전그는일족히평양(平壤)모교회에서봉직하고잇섯는데그후처인라씨(羅氏)와의사히가매우불화하야 가정에는 때아닌풍파가 끈칠날이업섯고 온갓추문이그들의가정을 에워싸고 석하게떠도랏다 그러나『목사는리혼을못한다』는기독교의회 무언의 철측이 그의 머리우에서 모든구든결심도 그만냉정하게 쓰서버리고말엇다 그리하야 지금으로부터십년전에 칠십의 로모와어린자식들과 정든고국을 등지고개도집어먹지 안는 가정내의지옥의싸홈을 일로신(神)에게 바치는신앙생활속에 청산해 버리려고하야 단녀이국『하와이』로 향하엿든것이다 변하기쉬운것은사람의마음이다 그가 십여년전부터 서생으로두고 자식과가티 길럿스며 『하와이』로 떠날때에는 그가 업는동안의 집안일을 굿게부탁하엿든 시내 원동(苑洞)일백칠번지 김유진(金有鎭)(假名)이라는 청년은 안목사의명의로 경성모은행에 거치되여잇는 예금이잇는것을 기화로녀이고 안목사의후처라씨와 공모하고는 금년겨을에와서 돌연『하와이』에잇는 안목사를 시내 적선동(積善洞)일백구십칠번지에 잇는것처럼꾸미고 그가십년동안 안목사의집에서 서생노릇을한 보수로팔백원을 청구하는 소송을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제긔하엿다

결과는 물론김유진이가 예기하엿든대로 결석판결(缺席判決)이나려서 김유진의승소로끗나서 그는곳안목사 명의의예금을 차압하엿다

바다건너잇는 안목사는 물론이일을 알리가업다 그의 칠십로모와 목하광주(光州) 모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잇는 안목사의 애녀○○양의 두사람은 사일아츰종로서(鍾路署)가신년최초개청하자 마자 서장을차저와서 이러한사정을 진술하고사건의 진모를 밝혀주기를탄원하얏다 이에경찰의손에의하야 부재목사의 가정에엉킨 애욕갈등이사정업시도 백일아래 나타나려고한다

江東强盜逮捕

【平壤】 십오일오전이시경강동군강동면 복흥리(江東郡江東面伏興里) 박운엽(朴雲燁)(三七)의집에 침입하여 식도를휘둘으면서협박하고현금삼백원과저금통장을 강탈하고 달아낫든 강도사건이 잇슨이후 강동서에서는범인을 엄탐중이든바 이십칠일동면 룡흥리(龍興里) 리선규(李善奎)(三○)가진범인인것이 판명되여 강동서원에게 체포되엿다



네오패독산 (改良敗毒散)

감기·해열 즉효약

모ー든病의原因이되는感氣가만히流行할때가왓습니다 우리는特히注意하야 예방과治療에努力하도록합시다 감긔를오래알으면 肺炎肋膜炎肺病으로 變하기쉬운것입니다 만일감긔가들게되면이 네오패독산(改良敗毒散)을 곳服用하야 完治식혀버리도록하십시요

네오패독산 效能 감긔、유행성감긔、두통

定價 三日分 二十錢 六日分 四十錢 十五日分 一圓

總販賣元 京城鍾路四街
特約 藥괴구도ー근
本舖 三省堂藥房新藥部 電光八一三番·振京四六六番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同 京城本町 木村藥房
全國有名藥房에有함但品切時난本舖或은代理店으로

世界的靈藥 淫羊藿엑기스錠

主治適應症

房事過度、手淫、早漏、遺精、夢精、男女不感症、性慾減退、腎氣不足、補陽精力增進、性的神經衰弱、消化不良、貧血、冷性、健忘症、食慾不進、百藥無效

價二十五日分五圓、六十日分十圓、百三十日分貳拾圓

製造元 京城公平洞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二·電光一三五六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本町 木村藥房

補精强壯劑

大阪朝日新聞報導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

大阪朝日新聞報道(轉載) 衛生課에서實驗證明한學說公開

淫羊藿은 支那一部와 平北에서만 野生하는貴重한藥草로古來로부터 上流家庭에서貴重히使用하든藥으로特히補精强壯劑로驚異的效能을發揮함은一般醫藥界에서周知하든 事實이든바 (最近에白石警察部長自身이淫羊藿엑기스를實驗한바참으로놀날만한特效잇슴을證明하얏슴으로目下衛生課에서는(모토못도와)家兎에게淫羊藿엑기스를與하야實驗한結果其效力이驚異的으로顯著함을證明함) 補精强壯劑로널리紹介하면實驗한效力의依하야 朝鮮人蔘을壓倒할時期가不遠하리라思함(以上은衛生課에言明)

第六回日本藥理學會에서發表한學說

幽玄神秘의 漢方醫術과 現代醫學과의完全한融合에依하야 創製된劃期的興陽强壯劑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資本金壹千萬圓
各種信託 低利擔保貸付
朝鮮信託 朝鮮京城
(營業案內贈呈)

朝鮮舊式婚具用品具備
營業種目 鍮器各種、漆器木器 婚用錦品、屛風衾具 朝鮮樂器、都散賣
京城鍾路二丁目五十三番地 振替京城九一一七番
德泉商店

專門 耳鼻咽喉科 沈相天醫院 (入院隨意)
京城樂園洞一三七 교동오거리

桃花劇場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二

團成社 授恩洞 電光九九

暴風의處女 全九卷
砂漠의遺產
青春의血潮 全十一卷
가타오를때

레코ー드와 蓄音器具備
京城鍾路二丁目 學·喜樂器店 電光一六三七
새에로레코ー드 新譜大發賣

村落에서 都市에 都市에서 村落에

大田

府制實施問題와 教育機關施設

大田 一記者

충청도는 원래봉건층(封建層)이 제일만이 살어서세상혁편이야 어떠케되는지 말는지항상 넷생각그대로 사랑방에서 긴담배때만 뚜드리며 량반이니상놈이니만 찻는것은이 유일한사업인줄만알고 잇섯다 눈발고상업을이 능란한외래의 자본가들이마음대로 손을펴치기에 거리낌이업스니 작고만팽창하야 가는자본가의 세력을 누를드리는천연잇슴수업섯다 비옥한 토지는대부분이 동척(東拓)과 식은(殖銀) 그리고 대지주의 소유물이되여버리고 상업도시로 충청도에서 수위라고 할만한대전(大田) 강경(江景) 공주(公州) 조치원(鳥致院)등지는 거지반 다른사람들이 경영하고 조선사람들의상점이라 고는한쪽구석에서참담한상태에빠저잇다그리고공업(工業)이라고별로볼것이업스나 례산에서경영하는성원경(成元慶)씨의충남제사회사를빼여노코는모조리다른사람들의것밧게업고해물(海物)도상당하만키는하나 그것역시별도리가 업는곳이다그리고 교육기관 (敎育機關)으로보드래도 중등교로서공주고등보통학교 하나와 공주례서경영하는공주영명학교(永明學校)밧게는아무것도업스며 보통학교는 일백칠십면에 일백삼십팔개소밧게 업고 삼십이개 면에는 보교까지업서서 대다수의학령아동이배움길이업서방황하는처지이다 그리고 종교계역시한심한 처지에잇스나계룡산(鷄龍山)을 둘대로한 자칭종교단체는신도 (新都)안에잇는 상제교(上帝敎)를 수위로 대전군탄동면(大田郡炭洞面)에잇는수운교(水雲敎)연가(燕岐)군에잇는 금강교(金剛敎)등외에도수십개소나잇다 농촌의상황을보면 우에말한바와가티 토지가거지반대지주의 손에드러가잇느니만치 자작농은 몰과엄마가되지안코 그대부분이 소작농이다그럼으로 농민생활은 크게몰안한상태에 빠저잇는 현상이다

그리고 충남에서 제일수위를점령하고 잇는 대전(大田)시내는권조선을 들추워 보아도이곳이상으로 조선사람이 참담한상태에 빠저잇는곳은 업슬것이다 상업계에는 번듯한 상점하나업고공업계에서 조선사람의경영은하나도업다, 교육기관으로도일본인농학교와고등녀자학교가잇는외에 상업보습학교한개가잇고는 조선사람의 교육기관으로는 제일제이의 량보통학교밧게는업스니 얼마나 참담한일이라이상에열거한모든정세는충청도의발전상크게취급치안을수업는문제이어니와지나는새로맛는일천구백삼십사년에는다음의멧가지가크게문제되리라고생각한다

◇大田府制實施의件

대전은 교통으로보아 남조선의중심지대일뿐아니라 이미 삼만오천의 인구를가젓스며 큰산을은업다고 할지라도 상업도시로서는 멧재가지아니할만치 발달이되여잇다 그럼으로 충독부에서도 예산조안에 너엇다가전주(全州)와광주(光州)서야단을치는바람에 고만예산까지 삭제하야버리자 대전에서는 틀님업스라고밋고 잇섯든 부제(府制)실시도 수포로 돌아가고말엇다 금년도에는 대전시민일동이크게궐기할문제일것이다

◇高普及女高普設置

충남에는고등보통학교는공주에잇다고 할지라도 교통관계로공주고보에 입학시기라면 차라리경성으로 보냄다고 할지경이며녀자중등 교육기관은 아무것도업다그럼으로 론산(論山) 옥천(沃川)영동 (永同) 조치원 (鳥致院) 천안(天安)홍성(洪城)등지를연합하야 대전(大田)에다고등보통 학교와녀자 고등보통학교일개소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될것이다

◇第三普校新設의件

대전제일보교와제이보교에서는일년에입백 사십명식 밧게모집하지안이함으로 매년오백 여명지원에 겨우이백팔십명식 밧게입학치못하게 됨을유감으로 생각하고 유지멧멧이 제삼보교긔성회를 조직하야가지고 긔부금모집에 착수하야 이미팔천여원을 모집하야잇다고 한다 그수가 만원에달하게되면 도당국에서도 신년도에는 인가하야주겟다고하니 이긔회에 조선사람된우리는 우리의어린니의 만리가튼 장래를위하야 일치협력으로 제삼보교를실현시켜야 할액이다

◇消費組合組織의件

수용자와 공급자(供給者)의 사이에상인이 잇서서 물건을싸게사가지고 수용자에게 빗싸게팔어그중간 리익을 따먹으니사는사람이나 파는사람은 몰소한손해를보게된다 그것은 즉수용자도되고 공급자도되는 농민과로동자계급이 제일만흔 손해를보게됨으로 오래전부터 대전소비조합문제가 잇섯스나 아직그실현을보게못된것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된다 신년도에는유지제현의로력으로 소비조합의 실현이잇기를 바란다

求하는건사람 爲先은商工에注目

姜藩氏談

우리대전의 발전은물질을 요하지아니하고 사람을요한다 사업은획일적 (劃一的) 이아니오다각적 (多角的) 으로할것이다 대화물의 집산지가 아니오생산지도아니다 그러하나 물화집산의편리와 산물의 구존한은다른곳에양두고자 아니한다 그럼으로우리의 발전은농업으로 상업으로 공업으로 또는리상으로평행으로 진전할것이다 위선은상공에대세력을 가할필요를 늣긴다다행히 우리는천혜의 명미한산수와 온화한긔후를 가젓다이에마동파 선속(善俗)을 토대로한완비한 문화건설이 필요함을적실히 늣긴다 만천하의선량한인사들로 우리의 고향을동경케하자그들의 자제를 이곳에양육케하자 발전의최종목표는 락원을 건설하는데잇다

麗水

防波堤促成과 邑營街地開放

金景澤氏談

우리려수는차녀지이면서도그만큼순수미가잇는것이아니라맛치날카리운처상과부의 모양과가튼감이 업지안슴니다 웨-이토록까지 순진미를상실하엿는가하면첫재는당국의 무성에도 중대원인이잇지만은이삼년전제이부산(第二釜山)을 건설한다고 할때 남철(南鐵)회사는 이십여만평의 부지를매수하여고려수읍에서는如만두천여평의시가지를정리하여두고 대재벌을통새하여지만 사업을경영할만한자본가는추파를건느지안는동시에 각처로 부터밀뜻드러왓다가 심각한 불경기로말미아마 랑패중에 잇는까닭이외다그러므로려수를발전케할제일급무는항만방파제(防波堤)(이미계상한이백만원의 공사비가의회에통과되엿는지는아즉알수업스나) 공사를 착수하는한편 읍영시가지(邑營市街地)를종속히 매각하는동시 곡성(谷城)까지나려온 전려선(全麗線)철도가 개통되는때는 자본이용동될것은물론 각지로부터재벌(財閥)들이 압홀닷토아 사업을경영할것이요 우리려수는 대도시를 형성할것이외다 그리고끗트로 한발삼하고저하는것은 우리조선사람의 실업가나 상업가들도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말하기는 어렵지만 좀더크게유의할진대 개인의리익을 엇는동시그여향은 널니밋츠리라고 생각합니다

◇寫眞…金景澤氏

仁川

勞動者仁川에 工場擴張의必要

勞働會長 金允福氏談

◇寫眞…金允福氏

【仁川】 인천은경성의관문이오조선에서가장려사깁흔개항장인만치 정치적경제적으로 직접간접막대한 관계가잇는곳이다 건한국대원군 시대에 임오년군란으로인하야 권청국정부에서 오장경(吳長慶)이가 조선에 와서그군란을 진압한후 내정간섭까지하게되고 갑신년에 정변이일어나자 일청조약이 체결되어제물포(濟物浦)개항이되엿든것인데 당시일개어촌에 지나지못하든그제물포는오늘날칠만인구를포옹하게되고 무역액 칠억만원을돌파하게되엿다 그러나 대정십사년이후로 세계적 경제공황이파급되여 도시농촌 어느곳할것업시 모조리 공황을당하야실업자가 속출하야 살길을찻는농민들은 도회지로 모여들게되어오늘날 인천의칠만인구를 헤아리게된것이다 그러나 그들의생활를안정식킬만한 긔관의시설은너무나 부족하야 그실업군을구제하고 인천의 발전을도모하자면 무엇보다도 공장을확장하는것이 선결문제일것이다 인천에약간 공장이잇스나 려량과수자적으로 보아서 도저히수만흔로동자를 구제할수업다 금년봄부터 개업하게되는 동양방적회사인천분공장이 건설되엿슴으로일반로동자는만흔긔대를가지고잇스며딸아서인천번영에막대한유익을주게되엿스나 그러나이공장만으로는 그들의 로동려을 다흡수할수업슬것이다 인천에설립될력주공장이용수(用水)부족으로 다른지방에 빼앗기게된사실이잇는즉우리는인천부로하야금수원(水源)조사를촉진하야 공장을건설하야써 로동자의인천에서 공장의인천을 맨들고공장의인천에서동양유일의생산품수출항을맨들지안코는인천의발전을기대할수업슬것이다 이문제의해결은인천부당국자와천만부민의책임이라할수잇슨즉관민이일치협력하여야할것이다

宣川

宣川의發展은 團結과協同으로

宋義禎氏談

【宣川】 다감다한(多感多恨)한계유년을보내고유희유망 (有希有望)한갑술년을 맛게되매자연 늣겨지는것이 퍽만습니다우리선천은 일만오천이란 인구와이방여리의 면적을 가진서부조선에 굴지하는 문화도시오상업도시입니다 선천이라면 누구나홈모하며 따라서 우리도자존심을 가지고잇는 선천이다그러나일부의 종교단체를 제한외에는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선천의 발건을 위한어떤단결이나협동체가 별로 업스니이것이참말선천인사의 일대수치요 선천경제계의 장래를위하야 크게개탄하는바이다 금일의 대세는생명의 지배되던경제적신권(新權)이격렬하여가는데 우리는기업자금이 빈약한환경외라 경제상 훈련이 적고산업상기술이부족한처지로 부득이 경제전선에오르게되엿다 그러면 우리는약자의 무긔가 단결이오유일의권술이협동인동시에단결과협동이업는약자의압헤는죽음뿐인것을니저서는아니되겟다 그런고로마시의 탄식이어지못하나 이제라도 우리뜻을모흐고 정성을것치하야 협동에대한일보의 실현으로선천번영을 위하야 우리힘을합한금융긔관과 적은 자금으로모아 대기업을 경영할수잇는주식혹은 조합을만들며 중간리익을배제할 구매조합 (購買組合)과소규모의산물을 합하야팀은판로를 어들수잇는 판매조합(販賣組合)도 설치하며 적은지방에서 동업자간경쟁을하야 패망하지안토록 동업조합을 만들며 전두에서종사하는 어린청원들에게 장래경제투사의 자격을양성할간이 훈련긔관도 세우고종일수자와 산판으로 피곤한시민보건을 위하여운동급 적당한오락긔관을 만들어 섭협을기우려모흔 돈을랑비치안토록 하며경제지식 향상에도움이될 간이도서관등 설비가생겨야 비로소우리개체에게도 행복이 도라오고 선천건체에도반영책이 될줄로자신한다

◇寫眞…宋義禎氏

鎭南浦

貿易地帶完成과 公設市場促進

米穀商組長 李榮瑢氏談

진남포발전책에잇서서는부내유지여러분이다가티거정하고 연구하는바 도로(道路)문제 매립공사등이 속히실현하여야 될문제이지은 근만본문제가 재원이기때문에 아직실현을 보지못하고잇는중인데 저로서한가지 걱정하고잇는바는 진남포 조선인생활에 사활문제라고 해도과언이아닌 연안무역지대가 큰문제입니다일년이백만석이나출회하는곡향이라고 자랑하는 진남포로서금년에는 벼가사방으로 드러오나벼를 싸아둘곳이업서서 배가삼사일식이나 기다리게 되니이러게된다면 진남포로 벼를가지고올 사람이업게 되겟슴니다그러케된다면 조선사람에게 직접밧는영향이 엇더타고 말할수업겟슴니다 그럼으로 하로밧비각관게 당국에서까지라도 이문제를 중대히생각하여 이무역지대를 완성하여서 미곡이마음대로 하록하도록하게된다면 진남포는 과연 미곡의 도시가되는동시에 큰번영이잇을것을 긔대하는바이며 또한가지는 특수사정을 갓고잇는진남포의 시장문제입니다 일반시민중에서 현재룡정시장을 시가의 번영을위하여철폐하자는 의견도잇고 또소비대중으로 보아서 철폐를반대하는이도잇는데 이는 량방의의견이다 일리가잇다고는 봄니다그러나 대체진남포 시가지번영으로만본다면그사장때문에시가지번영상 다소의 영향을받는것도사실이다그래서금년부예산중에공설시장안이문제되어잇는데공설시장문제가해결된다면자연적으로재래시장이큰영향을바들것은사실이다그래서제생각으로는위선이두문제만완전히실현되다고해도지남포번영책에한부분으로큰역할이되리라고밋슴니다

金浦

産業機關統制 小作制度改正

玄晟運氏談

김포에는 쌀이 그주요산물인만큼이것이 엇더케처리되느냐하는데 김포의 발전책이 잇슬줄암니다 위선 군농회나 산업조합등농제긔관으로하야 현재의 소작제도를 임신하지 안하면안됨니다, 다음에 그중요한것을 렬거하여보면 一、토질개량 二、우량종장려 三、생산비저렴 四、농자식냥을처리로대부 五、생산품판매 六、백미가공 七、판로안정 (대도시소비지에판매점설치) 八、 소비품구입통제 九、적극적축산장려 一〇、각면에정미긔설치。

일개월이후로 연장할일

소작제도에관하야꼭칠중요점은 一、도조급병작물의납부긔간을 二、벼는 일제히껍질을 벗겨정미나 현미로징수케 할일 (정미나현미는 지주수의로정함) 이상농제긔관의시설과소작제도의두가지만해결하고 농민자체로서는 一、자작 二、단결 三、교육 四、종교 五、근면이필요조건이라고생각합니다

羅州

緊急한 五大問題

金炳斗氏談

지금의라주로서는발전즉문화수입보다도그들소화시길능력의양성이선결문제이다 언제나소작료만 상대하는 봉건퇴물인지주 노릇만한다면 도저히문화시설을 리용할능력을못어들것이니 좀더 사업에투자경영하는 동시에 사업에대한경험과 인식을 어더야하며지방의 서신에무관심한 태도를고처 사업과환경의관계를 알어야한다

가、수용할긔관업시방황하는청소년을어찌할까

나、현재의농업실수학교를갑종농업학교로승격시길것

다、지방발전에대한구체적운동을할수잇는중추긔관의수립이필요하며

라、지방의가장유망한산업에류의하여야하며

마、라주와영산포 량시가를 련합시길 원대한계획에 대하야구체안을수립할것

이상멧가지에 몰하나 오즉이긔회에 지방인사에게 다소의힌트를줄수잇다면다행으로역이는바이다

洪城

交通機關爲始 五件의急施設

李丙雨氏談

자고로 우리홍성은호서의 웅군대읍(湖西雄郡大邑)으로유명한 갑오(甲午)병오(丙午)등의귀쟁이이곳을 중심으로하야 상당한려사를 가진땅으로 일시는장당한진보와 번영을보게되엿든바 최근에이르러는 일반우리네의 모든방면을 보아십히 피폐상태에빠저바렷슴니다 이를 개척하야써우리고향을 번영케하라면

一、도로교통긔관등의시설을안전케할것

一、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洪城公立工業專修學校)를 승격케할것

一、시구를정리하며 현시장(市場)을 읍과 역(驛)중간 지점에두고 현대교리(大校里)와 고암리(古岩里)일부를 읍내로편입케할것

一、본도세(道勢)로보아서 서부중안인이 홍성에 도립의원을설치할것

一、집제(家賃)와 전등료금를 인하하야써 일반 약소민중으로하야곰 생활을 안정케하야

◇寫眞…金琪浩氏(昨日記事參照)

다수군중을집합케할것 이를실현함에는 지방인사의 만흔로력과 주무당국의 만흔동정과지도에 잇슬것이라고보며 더욱이 우리는우리의 현하처지와환경이 어떠다는것을 잘간파한후 비로소권도를 개척하야번영케할것인바 요컨대 각자의자아인식(自我認識)이 무엇보다 필요타고생각합니다

陰城

무엇보다도 金融機關創設

崔彰鉉氏談

우리 음성에도 축부선이 부설된 이후 권에 비한다면 좀 번영하여 진듯하나 다른곳에비한다면 아즉천양의차이가 잇겟습니다 년래로산업진흥과함께 황색연초란 다지 산미개량사업도 착착진행중에잇서서 압호로 음성이발전할여지는 아즉만히잇습니다 그러나 산업도산업이러니와 상공업이 흥왕치안으면 지방의번영은긔할수가 업는줄압니다 상공업이 흥왕하라면 금융긔관(은행)이 잇서야 할터인데 상공업자들이 여러가지로 은행을리용케될때에 우리음성가튼데는 은행이업는관계상 일반상인자들이 다른지방에가서 리용하게 되닛가시간으로 물질로 불편함이만흠니다 이에딸라 대규모적으로벌용긔도 돌지안으며 자연이타지방에 고객을기다릴 여지도업고배지방의 손님을 타지방으로도로혀 빼앗기고 마니금융긔관업시는 대단히어려움을 잇슴니다 내 고향발전책은 금년무가온행설치문제인듯합니다

農産等開發로 東洋丁抹是期

海州金相殷氏談

조선내에잇어서 곡향의 충을밧는해주지방은실로 경지 면적으로보든지과토로나 풍토지미(風土地味)로나 특히농업본위의생산사명을발휘하여야할처지에잇다 따라서 황해연안처녀지에각양의어류패조(貝藻)등의무진장의어화양식등의 보고 이모든천혜적조건은본지방이서부조선의장래동양정말의산업왕국을실현할소질을갓추고잇다그러나 아직도 과도긔 농작상태를버서나지못하고 잇는것은 너머나뚜렷한사실이다 그럼으로 농촌에뜻잇는 인테리 청년들의귀농을비롯하야 제반근대식농업 방식을행하야 보담더 생산가치증가를실현하도록 힘써야 할것이라고밋는다

둘재로 수출항으로서의 룡당포의효률(効率)을일층향상케해야겟다 본지방산업 방면과관연하야 생각할때 룡당포개항의존재는수입항으로보다도확해도의수출항으로서의 직칙은 일층크다

셋재로 농산대중의 부담경감으로 각수리조합의 부담긔간연장실해책급 근린군하의 면폐합정리등가타로 농촌부담을 제감해야할것이다

넷재로 해주의 금후도시발전상태급 기타실정으로보아 광범한 남산지대(南山地帶)급 광석천매립지 (廣石川埋立地)를 주택난에헤매는 일반 세민계급에 개방하엿스면한다

農民負擔輕減 米穀吸收注力

仁川河相勳氏談

인천은 조선 유일의 무역항으로 일반공업에 가장 적의한 개항장이다 무역액은소화삼년도에 일억사천칠백만 륙천사백여원의최고기록을 돌파 하고공산액은 녀액삽천만으로 취종정미의 제조액이 이천마팔십일만일천원 현미의제조가 칠백사십만오천원 합게이천 팔백이십일만 륙천원으로 인천공산액의팔할이상을 점령하엿다 그러면인천은 쌀의인천이며 인천의생명은 정미업이라하여도 과언이아닐것이다 과연인천은 경긔도충청도일부 황해도 평안도일부의미곡을흡수하게되며딸아서원료를공급하는농촌을상대로하지안하면아니되게되엿다그렁으로인천은농민에대하야친절또는편의를도하여야될것이다그런테작년십일부터미곡통제법이실시되고딸아서미곡의검사가엄중하야정미제조업자는채산이맛지아니하는관계상 정조를락가하야 사지안하면 아니되며 반면의빈민은그만한 손해를보게된다 이것은 조선의어느집산지를 물론하고 다가티당하는바어니와 인천의 연안(沿岸)무역지대는 각처로부터 회작되는곡물를 야적하여두는곳인데 그지료를 또한농민이 부담하게된다 그렁으로연안무역지대 사용조합은 될수잇는대로 농민의부담을 경감하도록하여야될것이며 인천의 생명선이라 할수잇는 정미계에서도고객인농민의 편익을주어 요원한장래의 미곡흡수책을 강구하지안하면 아니될것이다

春川

江原道廳食堂員一同

春川郡廳職員一同

朝鮮金融組合聯合會江原道支部
江原道各金融組合

春川道立醫院 院長 松井虎雄

殖産銀行春川支店長 佐佐木恭

江原道會議員 山中友太郎

春川電氣會社

江原道 土木建築請負組合

春川 牛頭水利組合

西大門刑務所春川支所

春川郡南山面 金榮大

春川邑 春仁商會 主 朴聖出

春川邑 大同商會 金洙〇

春川邑事務所

春川邑本町 善映商會 黃潤秀

專賣局京城支店 春川出張所

新昌

咸南新昌港 北靑郡學校評議 金性協 崔豐均

咸南新昌港 新昌回漕店 金禧柱

咸南新昌港 新昌海陸商工協會

咸南新昌港 新昌面長 鄭顯吉

咸南新昌港 布木商 權泰溶

咸南新昌港 新昌自動車商會 崔日南

咸南新昌港 新昌海陸商工協 會長 全明信

咸南新昌港 金豐商店 趙時衡

咸南新昌港 新昌酒造場 趙璇衡

高山鎭

江界郡高山鎭 高永商店 主 李永杰

江界郡高山鎭 高山鎭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江界郡高山面事務所 面長 金澤俊 徐貞三 李枝茂 金猗闢 金基溶 李炳厚 金熙星

江界郡高山鎭 高一商會 主 李承德

江界郡高山鎭 金融組合理事 朴奎善 李鎬環 安英均 金能孝

江界郡高山鎭 農民共生組合

江界郡高山鎭 李興奎

江界郡高山鎭 李熙東

江界郡高山鎭 公醫 金鎭學

江界郡高山鎭 大每、京城日報取扱 高城旅館

江界郡高山鎭 消防組頭 宋尙珍

江界郡高山鎭 仁濟醫院 金高根

江界郡高山鎭 三宅源三

江界郡高山鎭 小田清太

輯安縣通溝 協成醫院 院長 金泳壎 醫師 金聖河

江界郡高山鎭 吳鎭祚

江界郡高山鎭 劉洪鳳

輯安縣通溝 滿盛樓

輯安縣通溝 高泰化

江界郡高山鎭 池宗海商店

文藝

一九三三年의 朝鮮文學의 諸傾向과 展望 (四)

林 和

『端宗哀史』『李舜臣』等의所謂歷史小說—多分히通俗的인—에잇서 그것은 完全한封建的過去의對한憧憬으로낫하나 그되作家的活動의그뒤에모든部分을 갈사록더一貫하고잇는것이다。 이, 春園의歷史文學에잇서서는 過去二十年代의浪漫主義가 大端히複雜한過程을通하야 部分的으로

━自然━ 經濟的朝鮮과結付되어잇섯든것과는反對로 大端히뚜녹한形態로 直線的인過程을通해서 全的으로封建的過去와結付되어잇섯든것이 가장큰特徵이다。

勿論 이傾向은 二十年代의浪漫主義보다도 더完全히過去와結付되여잇고 더尤甚한程度로 非文明的이고 反歷史的인것은重言을要치안홀바이다。

그의文學에잇서서는 眼前의現實에對하야 勇氣잇게對하고또그것에向하야 힘잇게行動하라는意慾대신에 그는『喪失된過去의夢幻』가운데서 잠자는것으로써 뿐만아니라 空虛한過去에對한憧憬가운데로

━讀者━ 를모라넛는것으로써 今日의現實에잇서서自己개급을위태케하는사람들에게 降伏의精神을이야기하는것이다。

特히 春園이 比較的本格的인 態度는가지고 執筆햇다고볼수잇고 그만큼 題材를 現代生活의 한 가운데에 서求한 小說『흙』을 읽어 보면『降伏의精神』은 더 한층積極的으로이애기되고잇다 뿐만아니라 이精神의說明을爲하야 生生한現實은 조각조각떼여떠러지고 歪曲되어잇서 그의作品의藝術的形象을 大端히

━貧弱━ 한것을만들고 作者의 貴重한藝術的努力과天分은 哀然한結末을짓고잇다

『흙』가운데움즉이는 만흔人物과 生活과自然의對한 作家의相當히놉흔形象的描寫의機能은 至極히制限된 枝葉的部分에만作用햇슬뿐이고 作者의世界觀은 主要한部分에서 人物과生活의諸關聯을 槪念化하야現實에서 『잇슬수업는것』을 마드러버리엇다

特히作者가 이作品가운데서 企圖한 朝鮮農村現實의 여러가지 過程에對하고잇는『흙』가운데의『리알리틔』는 相當히만흔價値잇는 收穫을남기엇슴에도不拘하고

━作者━ 의『人民主義』—現代의말로하면, 民族改良主義로서表示되는 思想의說話와 主人公으로하여금그것의實踐者로 만들려든 곳에이르러서 作者의現實을보는눈은 當場에무듸여지고만다

이리하야 『흙』의作家는 今日의朝鮮現實을 움즉이고잇는 基本的『힘』이 무엇이라는, 特히 都市와農村에對한 全혀獨斷的인觀察로 始終하고 말은것이다。

더욱이 朝鮮의 近代文學의建設者의 한사람이고, 今日에 잇서서도 그들의代表的作家의 作品가운데서 이러한 **━傾向━** 을볼수잇는것은 注目할現象이며 敎訓的인事實이다。

이러한 『過去의精神』에對한 偏愛로말미암아 文學은 藝術性을 喪失하고 잇는것은 『흙』의 作者以外에 到處에서 發見할수잇슬뿐만 아니라, 今日의 뿌르주아 文學의指導的 作家의大部分의 活動을 支配하고잇는現象이다

그前날의 朝鮮的自然主義의 深刻한代表者의 한사람이든金東仁의 通俗小說『해뜨는地平線』『雲峴宮의봄』等은 春園의 諸作에比하야 훨신더卑俗한것이나 그것들과 同一한作家的 **━態度━** 와精神으로 무장되여잇스며 本格的興行本位의 尹白南의講談小說等은 이러한 反動的歷史文學이 얼마나 廣汎히 今日의 뿌르文學을사로잡고잇는가를볼수잇는것이다

그러나 모두다 이것을藝術文學이라고評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일인가는論爭의餘地를두지안는問題이다

더구나 大衆文學이라는것이 四、六年前만해도 朝鮮의新聞雜誌에서 차저볼라야 볼수업든것이 只今에는 이러한讀物을 싯지안은刊版物이 업슬만치勢力을가지고잇는것은

━朝鮮━ 의文學과文化의發展에對하야 良心을가지고생각할수잇는 사람들에게잇서서는 甚히敎訓에가득찬事實이다 即 이러한 非藝術的文學이 二十年代—近代文學의 勃興期에서가아니라 今日에 낫타낫다는 事實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指導的作家들에依하야, 意識的으로 『過去의精神』을달아서낫타하고 잇는것은, 뿌르주아文學의 變化하야가는 危機를이약이하는, 有力한 한개의事實이다。

그밧게, 우리는, 若干의詩人들가운데서 發見할수잇는 所謂『愛國的慷慨』의 傾向을, 이 **━問題━** 와結付식힌다면, 興味잇는結果를 어들수가잇다。

一時 그線을은浪漫主義的熱情을가지고 노래하든, 巴人金東煥의 最近의詩風을보아도往年의 놉흔熱情은 간곳이업고 安價의回顧的感情의 遊戲에始終하고잇는것을 볼수잇다。 그의散文風의『水國櫻桃吟』等은, 特히 그代表的의 것이다。

一九三三年…… 文藝年報 (5)

金晉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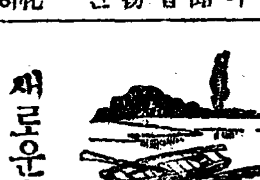
『綺語雜學』(論文—朝鮮二月)『現代英吉利詩壇』(論文—三千里二月)『平和의밤』(隨—朝鮮七月)『醉人醉譚』(隨—衆明六月)『春秋酒魂』(隨—東亞九月)『繡筆硯之說』(論—東亞十一月)『季節과衣服의再會』(隨—中央十一月)『讀書散筆』(隨—每申十一月)『新卽物主義戲曲의傾向』『三三年劇文壇의收穫』(紹介—文다三月)

金起林(片石村)

『에트린제의第一課』(隨筆—中央一月)『生活과파랑새』(隨筆—新東亞一月)『새날이밝는다』(詩—新東亞一月)『新聞小說『올림픽時代』』(三千里二月)『鬚髥을모합니다』(콩트—三千里二月)『구두』『十五夜』(詩—新東亞)『종달새와가티』(隨筆—東亞四月)『詩作의主觀的態度』(論文—新東亞四月)『들은우리를부르오』(詩—新東亞四月)『집은憂鬱』(隨—新東亞五月)『비지』(小品—第一線三月)『詩評의再批判』(詩論—新東亞五月)『古典的인處女잇는風景』(詩—新東亞五月)『遊覽뻐스』(詩—朝鮮六月)『李泰俊論』(作家論—朝鮮八月)『五月의아츰』(隨—新東亞五月)『浴水浴場의아츰』(詩)『武器와人間短評』(朝鮮七月)『포에시와모던이티』(詩論—新東亞七月)『미스터빨떡』(戲曲—新東亞七月)『어둠속반되불』(隨—新家庭七月)『現代藝術의觀念에對한欲求』(論—朝鮮八月)『어느때나電車는 民主主義者냐』(論—中央八月)『바다의幻想』(隨—新家庭八月)『田園日記의一節』(隨—朝鮮九月)『隨筆을위하야』(論—新東亞九月)『나의探險船』(詩—新東亞九月)『林檎밧』(詩—新家庭九月)『어린山羊의思春期』(小品—新女性九月)『藝術에잇서서의『이알리틔』와『모—랄』問題』(論—朝鮮十月)『毛允淑詩集讀後感』(朝鮮十月)『바다의抒情詩』(詩—카톨릭靑年十月)『어—네스트헤밍게이의作品』(映畵評—朝鮮十一月)『戰時局의午後한時半』(詩—新東亞十一月)『가거라』『□曉日』(詩—新家庭十一月)『밤外二篇』(詩—朝文十一月)『庭園의寂寞』(詩—三千里十二月)『貨物自動車』(詩—中央十二月)

金尙鎔

『無題』(詩—新東亞三月)『무지개도귀한것만』(詩—新東亞四月)『그대가누구를사랑할때』(詩—新東亞五月)『新服外一篇』(詩—東光叢書第二卷)『투르게녜흐(散文詩三篇)』(譯詩—東亞八月)『貧窮』(詩劇—新東亞八月)『空虛』(譯詩—新家庭八月)『滿足者』(散文詩譯—東亞九月)『處世術』(譯詩—同上)『世上의總極』(譯詩—東亞九月)『마—샤』(譯詩—東亞九月) 오—마·카이얌의『루바이얏』을紹介하면서(論—中央九月)『루바이얏時調譯』(譯詩—中央九月)『투르게녜흐散文詩』(譯詩—東亞十月)『勞働者와白手人』(투르게녜흐散文詩譯—東亞十月)『探求者』(詩—新東亞十月)『杜鵑賦』(존키—스原作詩譯—中央誌十一月)『斷想一束』(詩—新東亞十二月)



故鄉 【38】

李箕永 作
安夕影 畵

새로운우정 (五)

안승학은 어느틈에나왓는지 모르게 논뚝에서모심는것을보고섯다。 그는양산을펴서들엇다

그의시선은 풀밧에안진 갑숙이와 인순에게던젓다。 인순이가 누구인지모르는모양갓다。 일꾼들은 주인이나온것을보자 이야기를 뚝끈치고 부지런이 모를 꼿는다。 왼손아귀에서모춤에서、 모포기를재발니 때여다가 심을때마다、 물꼬에 송사리떼가 올으는것처럼 조로록조로록소리만 들니엇다。 내人속에서는 어린애들의재깔대는소리와 철벅철벅 물탕치는소리가들닌다。 밥가숭이들은、 벌서 제세상을 만난것처럼、 시내강변으로 몰리엿다。 보리이삭은 잇다금부는바람에 파도가티 굼틀거린다。 정거장에서는 차떠나는소리가들닌다。

갑숙이는 눈이 부시는 해人빗을 등허리로밧으며、 모심는일꾼들을 바라보다가、

『저—우리반에들은 무엇들을 하고잇다듸?』

지금다 버들넝쿨홀터다가 자근자근 접어서 상긋한 냄새를 맛고잇든 인순이는、 갑숙이가 뭇는바람에 고개를 도리키며

『시집간애도잇고、 노는애도잇고 다러난애도잇고、 그러치… 아마 시집간애들이 제일만흘게야!』

『서울노 공부간애는 별노업지?』

『내남업시 살기가어려운데보넬수가 잇서야지。』

인순이는 이편말을하는것가튼 생각이나서 더하고십흔말을 중단햇다。

『누가 다러낫다니?』

『앗다 왜、 홍변이라고 잇지 안엇늬。』

『그래、 그래。 저— 미차광이가티 잘웃든애말이지。 왜다러낫다늬?』

『저보다 두살이나들먹은、 머리꼬리달닌 글방애한테로정혼햇는데、 오날이 혼인날이면、 그저게쯤 내뺏단다。』

『웨하필、 머리딴신랑을 골넛슬가。 시시데기 재물넘는다더니 기애가 긔여 그랫구나。』

『머리는 땃슬망정、 어렵지는 안으니가、 사위덕좀 보랴고—。』

『아이그、 망칙해라。 늬반 말괄냥이곰보도 시집갓늬?』

『기애도 직어머니가 술장사해서 돈잘버니까、 너도나도하고、 사방에서 데가리를싸매고 대드렷대。 호호호…。』

인순이의 웃는모습을 흘닌듯이 처다보든갑숙이는、 마주정찬우숨을 던짓이우스며、

『그런애는 데려갈산애가 업술줄아럿더니……어듸나、 지금세상은、 돈이날개로구나。 그래、 홍변이는 저혼저갓대?』

『혼저갓다기도하고 누구를달고 갓다기도하닛가、 모르지』

갑숙이는 자긔보다 손아래인、 인순이가、 남녀관계에 대한말을 거침업시 대꾸하는데 은근히 놀내엿다。 이런생각은 그의 중심을 떠보고십허서

『너단니는 공장에도 남직공이잇겟지?』

『그럼』

『그들과가티 일도하고?』

『그럼』

『그들이 상스럽게 굴지안늬?』

『웨 안그래』

『그럼、 엇더케 지나늬』

갑숙이는 눈섭을찡그리며무참한 우숨을 먹음는다。

『그게야 피차일반이지—남자만 그런줄아늬、 계집애중에도 별별애가 다잇단다』

『그도그러켓지。 수백명이 한곳에모혓스닛가……。』

『그럼、 남자고여자고 별사람이 다잇지안쿠!』

『애—그러치만、 잡된산애가 엽헤서 지분거리면 난 못백일것갓다』

갑숙이는、 해죽이우스며、 인순이를 처다본다。

사실그는、 이다음에 공장에 드러간다면 그런성화를 엇더케 밧을는지 몰넛다。

갑숙이는 압흐로 자긔의신상을 생각하니 별안간『우울』한 긔분이 떠올넛다。 그는참으도 자긔의전정이 엇더케될는지몰나서、 은근히 상심이되엿다。 지금도 그는 실음업시 마음속의 요동을안꼬잇는데별안간、 어듸서、

『구님—』

하고부르는소리가들닌다。 돌네돌네보니、 저—긔서、 갑성이가 두팔을젓고、 뛰여온다。

謹賀新年

永同

永同邑內 消防組頭 孫在廈

永同郡深川面草江里 宋甲憲

永同郡黃澗驛前 穀物貿易商 陳孟洙

永同郡上村面弓村里 黃鶴金山事務所 電略(コウカク)又ハ(コキ)

永同郡上村面林山里 林山金山

永同郡上村面 面長 安相浩

京釜線永同驛前 綢緞布木雜貨商 金德雲

永同市場 米穀商 張商欽

永同市場 布木商 義和福

永同市場 新興商店 李聖澤

永同市場 布木商 天成泰

永同郡上村面下滸大里 南基榮

永同郡上村面下滸大里 朴重基

永同郡上村面大海里 面協議員 南圭碩

永同郡梅谷面 協議員 安完商

永同郡上村面林山里 嚴翼來

永同郡上村面林山里 南命祐

永同郡陽山面柯谷里 李泓然

永同郡深川面深川里 裵道允

永同市場 海陸物産日用雜貨商 金成達

京釜線永同驛前 海陸物産委託販賣 永淳商會 主 洪敬元 (電話五五番)

京釜線永同驛前 金泉酒造株式會社永同販賣所 郭昌根

京釜線永同驛前 藥酒 松葡 濁酒 東洋酒類釀造場 (電話二四番)

京釜線秋風嶺驛前 秋豊酒造場

京釜線黃澗驛前 馬山酒造場

沃川郡青山市場 布木雜貨肥料穀物商 春山商會

沃川郡青山市場 青山果樹園 主 金允中

沃川郡青城面山桂里 山桂釀造場 主 金敬煥

京釜線黃澗驛前 穀物貿易商 大陸商會 主 陸長龍

永同邑內 愛憐醫院 崔芝輪

京釜線永同驛前 內藤農場 (電話八番)

永同榮町 島金藏商店 (電話三九番)

永同郡上村面大海里 郭在元

永同郡上村面林山里 朴世鍾

京釜線黃澗驛前 宋在洙

永同本町 永同醫院 院長 鄭度相

永同郡梅山面柯谷里 李元周

京釜線永同驛前 金鍾恪

京釜線永同驛前 同信商會自働車部 主 金周植

京釜線永同驛前 大陸商會 主 宋在復

永同郡 龍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永同邑內 郡守 李海用

永同邑內 永同養鷄園 主 金容甲

京釜線永同驛前 南北棉業株式會社繰棉工場

京釜線永同驛前 郵便所長 三宅勝三郎

永同邑內 永同警察署 職員一同

永同郡永同面芙蓉里 姜百熙

永同郡黃金面 面長 韓昌根

永同郡梅谷面 面職員一同

永同郡上村面 權五采

京釜線永同驛前 忠北道會議員 宇都宮善市

永同郡廳 西村帆平

永同郡廳 藤堂美國

永同面 面長 洪明憙

永同郡陽山面 面長 李命周

永同郡黃澗面 面長 李景魯

永同郡龍化面 面職員一同

永同郡鶴山面 交友會

永同市場 株式會社 共榮社

永同市場 穀物貿易商 永同商會 (電話四五番)

永同市場 穀物貿易商 大成商會 (電話五八番)

鎭 · 興

宜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永興警察署 職員一同

永興郡鎭坪面翰洞里 翰興鑛業所

永興郡鎭興市 鎭興釀造場

永興郡鎭坪面天皇里 金貞武

永興郡鎭坪面 職員一同

鎭興繁榮會

永興郡鎭興市 尹明傑

永興郡鎭坪面西川里 趙達彦

永興郡億岐面 職員一同

永興郡鎭坪面猪島里 猪島捕介捕魚組合

永興郡鎭坪面天皇里 車珠元

司法代書人 朱仁華 朴成局 金正禧

穀物貿易商 孟承云 徐鍊伯

和洋雜貨商 林亨緒

和洋雜貨 貸藥 活泉商店 主 趙秉希

永興邑 永一洋服店

燒酒一手販賣 金昌烈

洪仁面事務所 職員一同

宜興面城里 公濟醫院 公醫 朴隆燮

德興面事務所 職員一同

永興邑內 有志 黃潤明

太陽旅館

東亞貿易倉庫株式會社

長興面事務所 職員一同

順寧面事務所 職員一同

宜興酒造元海陸物産貿易 宜興釀造場 趙成甫·韓永俊

永興郡億岐面栗山里 柳島捕貝組合

永興郡仁興面 職員一同

永興郡鎭興市 鎭興商務組合

永興郡億岐面柳島 永興社 近藤壽太郎 久米資起

鎭興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永興郡鎭興市 米興商 趙河允 趙時元 趙元衡

永興郡鎭興市 布木商 高益鉉

永興郡鎭興市 煙草販賣所 南相圭

永興郡鎭興市 布木商 李德秀

鎭興警察官駐在所 原多治

永興郡鎭興市 山本政次郎

永興郡仁興面潮中里 金南極

永興郡鎭坪面新堡里 金定勳

鎭興金融組合 職員一同

永興郡鎭興市 司法代書人 行政代書人 張寬厚

永興郡鎭興市 布木商 韓弘傑

永興郡仁興面 李星極

永興郡鎭興市 崔泰吉 金七星

永興郡鎭興市 時代洋服店 黃在元

永興郡鎭坪面翰東里 金相愚

廣州

廣州郡慶安面京安里 廣州郡廳

新長

廣州郡東部面新長里 廣昌酒造場 李昌夏

廣州郡東部面 株式會社成業社廣州農場 許炫

廣州郡西部面 廣州郡西部面 職員一同

廣州郡東部面新長里 松坡金融組合新長支所職員一同

廣州郡九川面 上一公立普通學校長 杉原久米四郎

廣州郡九川面上一里 上一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廣州郡九川面事務所職員一同

社會部記者의手記 (二)

三三年의手帖을불사루면서
外勤取材의苦心談

『푸록코ー트』업는 新聞記者의『逢變』
水害中의漫景一、二

작년중에생긴일도 수첩에 오르고 신문에아니난일을 쓰라는주문을맛고나니 하루에도 몃십장식쓰는수첩이라 일년동안 쓴수첩이 네댓권되거던 이제안저 한장두장뒤적거리기도쉬운일이 아니니 적벌업시 긔억하는

『마음의수첩』

『마음의수첩』을펴노코보니제한잇는지면에 허다한일을 다소개하기로는 거리(距離)가 넘우만코 그러타고 다집어치자면 쓸것이 역시적다 추리고추린것이 내긔억도재롭거니와 독자의 긔억도 무디지아니한수재때의숨은『에피소ー트』를두어마디 써보고자한다

◇

경상도의 수재로 당장물에밀리여목숨이위태한 피난동포 보다『컨보홍수』에 밀리여눈코를 바로뜨지못하도록 일에 답새서 쩔쩔매다가 겨우숨결을 늑일만한때 새로운정보는 전라도방면의 수해그것이엇다

왈ー『영산강(榮山江) 증수삼십척』!

왈ー『담양읍(潭陽邑) 전부류실』!

왈ー『순창읍(淳昌邑) 침백호류실』!

왈ー『송정리(松汀里) 전멸!』

등등등 시시각각으로 드리치는 전보는

쉴새가업시 감기어넘어가는

활동사진『휘타이를』보다 도더빠른변화를보엿다 그러나사람이란일을당하야침착하기가천균(千鈞)의무게를가지기보다 어려운지라몰아오는물결에놀래인생각으로이가튼 전보를 얼결에 처기쉬운것이라 사건의 발생지에서는 이런 전보가 자조오나 원체 그전에령남수해로잔뜩 긴장되고 힘것 피로한우리의신경이 조금 찜ー하게풀리엿든끄치라『과연이수해가 어느정도까지심하나?』는 비판을나릴길이 업섯다 의론이 거듭하든나마지 결국은 특파를가기로하고 내가 그길을떠나기는재일보(第一步)를바든지 이틀만이엇다

◇

수재!물론 물구렁으로 수시고 다닐생각으로 글자그대로의 죽장망혜로 길을떠낫스니그때는 아즉도

검정구름이 한울은

에서『뿔』을키고달리는『럼비ー』선수모양으로 동서로 몰키고때로는 굵은소낙이 방울이맥고모자의 딱딱한 차양을호독독거리엇섯다

거기따라 내행장은 비속에 물궁뎅이에 야모조록 편하고 야모조록 간단하도록 차리엿섯다 밤차에실은몸을 송정리서옴겨실코 광주(光州)가서 내려노니 해는한나절이지낫고 비는무산선녀(巫山仙女)소임 조라 모

처럼차린 차림이 심접기도하고 우습기도하얏스나 목컨의 그천긔로 현지사정을안심할수 업는지라 초초한행색으로 도청을차저가 지방과를먼저들렷섯다

◇

과장을맛나 관내에수재가 잇서

얼마나걱정 이냐고안

은『한사날컨에담양읍이전멸할사를한측 마음편한『과장령감』정도의 수해를입엇고 송정리가 피해를 만이하얏다는 것이다 피해정도를 재처물으니 우물우물 어름어름 말씨와눈치를 아울러 살피니 룸파박게는모르고 어듸서면호가류실되고 어듸서몃명이 리재한것이며 피난민의 구조여하를 도모지까막눈이엇다 뜻밧게엄습하는 신문긔자질문의 긔습(奇襲)에 어안이벙벙하더니 밀어부치는공은 결국 사회주사(社會主事)엿다 그러나 미는것도 그래도가뀌으나 귀찬은듯이 보엿다 사회주사야말로 그때새로부임한지 사오일밧게 아니된다고하나 먼저부터와잇든 지방과장보다는 십배이상 거기대한지식을가젓고 역시리재민에대한걱정을하얏다

◇

대강로령을 들은다음 자동차를달리여 담양읍을가보니 평시에 몰리여다니든『룸펜』들이엇 백여명이든것이

수해나든날 시내ㅅ가

(川邊)에서 자다가 수재를 겨고난다음은 다업서지고 이십명이못남엇는데 물이빼인 그지음에는 그아랫녁(下流)내ㅅ바게서 시체를작고 파내일뿐더러 시체는 안보여도 시체썩는냄새가 코를찌른다는것이엇다 그러나 조사된사망자는 두명밧게업다고……자세히 물어보니 『룸펜』은 주소와호적이업기까닭에 얼마가죽엇서도 등대고 조사할곳이업서서 주민의 죽은자만수에너은것이겨우그것이라고……

◇

다시 거긔서 소식을들으니길이란길、다리란다리는 모조리 뭉기고、흐르고 씨기고떨리어통로가 끈친까닭에소식을 컨하알수업는데 순창읍은 컨멸이라는 것이엇다 길이나 잇스면 말이라도탈것이나 그여탈수업스리라해서 여원다리 풀린몸을 역지로몰리어 사십리래야

경긔충청도 의륙십리

보다먼곳을 밤ㅅ중까지걸어서 갓갓으로 데여가니 아닌게아니라 순창읍은 집한채성한곳이업시 커부가수천이오 곳곳이내음새라 여름날장마통에 수천한집웅새대기(茸草)썩는내도구역이나려니와광 (倉)속에 섬(俵)속에 깁히깁히싸아노은 곡식의물처여썩는냄새야말로 꿈피가쪽애지는듯하엿다

◇

려관을차즈니 버리는 고사하고 제집식구의잘곳이업서 서로도라보는관인데 낫서른 나그네야 오척의적은몸이나 등부칠바이업섯다 자정이 갓갑도록에를쓰다 한친구의후의로 한밤을지내고 사정을 두루통신한다음에 도로 담양으로 나오다보니 컨날밤중에통과하느라고 미처못본곳에 수해가 심한지라 그사정을뭇고자 주재소를 차저가니=특히그주재소와 순사의이름은 여긔서약한다= 사람하나도업고 쓸쓸하기짝이업다 사방으로 아파울삶히여 소장녹차저서 사정을들으니

소장의대답 역그련것

은여긔서는 모르니면소에가물으시오』하고대답이다만무책임에그치는것이아니라 불쾌하기짝이업섯다

◇

그러나 나의간곡적이 수재상황을보러간것이오 주재소 순사나가지고 책임을못고 시비를가리러한것이아니다 그룻냥을말것도업시 그러나못고 이다음부터는 그러지말라고 엄렷히니냐중에 말을하는데 남의 관청에 오는소위신문사 사람이면、정강바지 (半袴)에 웃옷(上衣)을 벗고오느냐고 도리혀 꾸중을하는것이엇다 그말을듯고 보니과심한마음은 살아지고 도리혀우수워서 남의관청에오는소위신문긔자는 모닝코ー트나 후록코ー트를입는줄아느냐고 말하고

나스스로가 대양소천

한일이잇섯다 나는 그길에서지방과장의 태도ー겸인사망에 대한조사ー례복업은 신문긔자를 기다리든 경관ー이세가지 속에서 다각기독립한 어떤삽화적감정(揷話的感情)을늣기엿섯다

◇

그리고 조선십삼도 그속에서 낡마다이가튼『넌센스』(漫景)가 얼마나 생길가 도라오는렬차、침대속에서혼자생각하다가그대로잠들엇섯다

ーー(丹頂生)ーー

豫備智識의必要
朴憲永押送當時에어든効果
平素의工夫가첫條件

나의신문긔자생활은 아직반년도못되엿다 처음에 입사하여가지고 외근을하라고하기에 나는대단히 주저하엿다 조금도 자신이업섯고 또이리저리 도라다니면서

머리수기기 때도그의

내의심경(心境)으로서는 참아하지못할것가텃다 그리다가결국 입사한지 불과십여일만에 외근을하게되야D관청하나를담당하게되엿다 나는다년간의학생생활에잇서왓고 쓰는것이대은사회에서격리(隔離)된 생활개일분말뿐이엿고 또약삼년간을 마지못하게되엿든 관계상 조선말 조선글에대하야는 참으로일년생이엿다

◇

그때문에 외근을하게되엿날부터 긔사를엇는것보다 순전한 평범한 조선글로기사를쓰기가여간 곤난하지아니하엿다 그리하여 써노코보면 참벌우수운글자를 써노코혼자얼굴을

불게한일도 만엇고지

금여시조선글쓰는데는숙련된것하나업다 오직 스스로위로하고 또다소간이라도 자신이 잇다고 다소간 관게도가지고 잇섯고 확만한것은 과거에사회운동에 또중학시대부터 그방면에 관심을가지고잇섯든관게상 조선서 경찰사건으로 가장만흔 사상관계사건에대하야는 그취재에여러가지점에잇서 편리한것이다 이방면관계의 과거대사건 인물게통가튼것을 종괴억하여잇는관게로『신마이』로서는 이점에는유리하엿섯다

◇

그리하야 귀괴와가튼 특수한 사건에대한유리한조건과 예비지식의덕택으로로 우연한원인에의하야 외근을 나아간벽두의 성공이라고 할수잇는

긔사채취는 박헌영

(朴憲永)을 상해(上海)에서검거압송하여온사건을 아러내인것이다 박헌영은 제일차공산당검거사건 당시에 내의고향인 신의주(新義州)에서 그를 알게되엿고 또 그의안해 주세죽(朱世竹)여사의 일홈도잘알고잇섯는데 경긔도경찰부에서 이사건의『힌트』를 엇게된것은 주세죽이라는 글자세자를경찰부장실에서훔쳐보고 여러가지 가상(假想)을 하고잇든차에 마침박헌영의 얼굴을 고등과분실에들어가다가 잠간보고뒤부 깨닷게되엿다 그리하여이사건에 대하야는 어느신문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알어내이게되엿섯다

◇

그러고 지난구월부터는 다시 C관청에도출입하게되엿다 이곳은본래 외근을시작할때에도 당당하리라는말이잇섯스나아무경험도업시

최고관청에 대단하야

결국 능률을 내일수업것기에 내스스로 사양하엿든것인데 이곳을가게되니 제일어려운것은 다른관청과 달나항상공부하야 준비하여가지고 가야만 긔사를어들수잇다는것이다 어떠양밧은 그저 적수공권으로라도 가기만하면 얼마든지긔사자료를내여중으로ー금사아히를 보내도녁녁히 어더올수잇는것가치 아시고잇는이도잇는모양이나 참말외근긔자의고심을아지못하는말이다

◇

C관청가튼데는 여러가지신문을 항상읽고 도정치 정제 법률등모든방면에 통부한상식과 소양이업시는 긔사채취가 아주곤난할것이다 그리고 외근하면서 그간에가장 유감으로생각되는것은 조선소작령초안의내용을 아러내이지못한것이다 이것에대하여는

상당히고심 하여보앗

스나 아직관청에 낫이넓지못하고 수완이부족한 나로서는 결국할수업섯다 결국일본모대신문에서도 극히약여히 다소간알어내여발표하엿을뿐이엇다

◇

그외에는 별로큰실패도업섯고 신통한성공도엇섯지만 다만 최근에 하나알어내인것은 공포(恐怖)의도시 상해에서국로리스트는 의거두로 견거되어후 국제문제로말미암아 열중불(日中佛)삼국간에 말성마튼 리수봉(李壽峯)을 경성으로압송해온것을알어내인것이다 이것은 바로그를압송해온날 오후에 늣게신문사의협로 사의간부와가티 고등과장을방문하엿든때에 그의『러불우』에

상해에주재 하는일본

부령사(副領事)적때다조(佐佐多助)씨의 명함에씨여잇는소개장을잠간엿보고 좌우간삼해에서 어떠한큰물이온것만은사실인줄알고 그다음날까지에 결국 리수봉을다려온것을 알어내인것이엇다 (쯧)

K、R記者

憧憬하든運動記者
그苦心은想像以上
『萬能』은過分한注文

운동기자! 표면으로는 그럴듯한식업가티 동경되든 이직업을 시작한지도 어언간한해를 넘기려한다 자세히말하면 여덜달동안 스포ー츠기자로서 늣긴소감 그것은 무엇보다모 이직업은내가동경하든 것과가티 화려한생활도아니고 유쾌한직업도 아니라는것、도리여 그와반대로 이기자생활의 내면에는 남몰울줄아림과 고통이수업시 숨기어잇다는것이다

◇

본래 이운동기자라고 하면외국에서는 보통스포ー츠의 각종목에따라서 그경기의 코ー치라든가 명선수라든가가 각각한종류식을 전문적으로 마타취급하게되는것이며、또그러케 하는데서뿐 비로소스포ー츠 기자가권위도엇을것이고 그취급도 원만하게될것이나 롱행하게도 우리조선이란곳은 모든것이 그러한것과가티 이스포ー츠 기자도그와가튼 형식으로 취급되지못하고한기자가 만능이여야 하는것 다시말하면 한사람이 축구、야구、정구、롱구、륙상、빙상등의모든종목의 스포ー츠를 맛타보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뿐만이라 씨ー쓴을마즈면 한날에시내각처에서 사오종의대회가 열니게되는때에도 동분서주 한사람이기사를 엇으려고 도라다니게된다 그런까닭에자연히 기사취급에 잇서자기가비교적 잘알고 잘하는종류라면 따라서 그기사도 완실하게되고 자기가 조와하지안코 잘모르는운동이면자연히 기사취급 도등한해지는페단이잇게된다

◇

이것은스포ー츠기자로는공동적으로가지게되는 페단이 안일수업다 그럼으로독자제현에게 불만을주는것도 한두번이 아닐것이다 그리고운동에대한 비평에잇서서도 외국가트면 일반의 스포ー츠의 시합등을 중심으로 일처한비평이 잇는것이나 그것도조선서는 그만한것이 허락되지안는다 아와가티 여러가지로 조선서는 운동기자생활이 곤난한것인데다가 나는 지난해사월에아무경험업시 처음 가자로출발하게된까닭에 난경과 고통은 실로보통이상의것이잇섯다물론 기사취급에잇서 언제나 정려의 문구를가지고 시합『스코어』를 긔록해가는것은 단순한 일이나 그와가치 종래대로다만 구경한 그모양을관흥적(觀興的)입장에서그대로긔록 해가는 것이아니고종터작건의시비 또승패의원인동에 깁흔감상과 비평을해가며동시에 일처한 예상기도서야만될때에는 이와가치 일인만능기자로서 더구나 나와가치초경험의기자로서는 실로 어렵기짝이업는책임이엇다 이와 가티 말한것은 별로호소도 아니고한탄도아니고 실로 팔개월간에늣긴감상을 정직하게고백 하고잇는바이다

◇

스포ー츠기자생활!물론여기에대하야 만흔동경을 가지고잇는이들이 서자아니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이생활이결코 밧게서바라보든바와가티유쾌한생활이아니라는것을나의고백피할께 부처두는바이다 머지안은장래에우리신문에도스포ー츠페지를 확장할때가도라오면독자제현에게좀더 운동란에대한 흥미를이끌게할것으로 그기운이 도달하기만고대할뿐이다 (쯧)

(KB記者)

洛東江激流거슬리다
고기밥될뻔한冒險
慶南水災特派後日譚

작년ー일천구백 삼십삼년한해동안에신문긔자로서체험한 큰사건을적적한다면지방으로는 경상남도 지방일대 의수재(水災)사건을가르칠수잇슬것이다그때서울서도비는작구쏘다지는 칠월초하룻날 오후 령시사십분이엇다 축발하기삼분컨 사회부장 김형원(金炯元)씨는 사진반윤필구(尹弼求)군을 태워가지고

최대속력 으로경성역에자동

차를모라다이엇다『이러케저러케하여라』는 몃마듸의 주의를밧자마자 우리는다리야 날살려라하고 차안으로뛰여드럿다 채 자리도 잡을새도업시 부산행급행차는 뛰하고떠난다 그런대 벌서 모일보사에서는 특파원이 하두들먼저 출발한녕편이나 시간상으로 하두가느저진우리로서는 이에대한 특별한방책 이업서서는 안될일이다 그러면 어떠케해야할가

◇

나는 잠간수재지 일대를나의 머리속에 그려노코 좀 생각해보앗다 올타! 경부선(京釜線)연안의 량산(梁山)구포(龜浦)등지의 소식은 부산에잇는지국(支局)또는통신사(通信社)의통신에 맛기리라 나는 그대신으로 마산선(馬山線)으로드리가서유림정(楡林亭)、진영(進永)사이의

기차불통 으로말미암아근

방일대의 상황을 건연할길업는 그현장의 수재실황을 어느누구보다 먼저보도하리라 그리하야 이 소식만은 우리 조선일보의독특한『뉴ー스』가 되게하리라 이와가티 나는『뜸관』을 세웟든것이다 그러나이『뜸관』에 한가지 어려운 문제가 잇다ーー기차불통되는 그곳은 무엇으로련락하느냐가 문제이다 올치!될도리가잇다 삼랑진(三浪津)으로 배한적을 준비시켜야하겟다 나는 삼랑진잇는 친구 장세영(張世英)군에게

전보한장 을 쳣다

『진영으로가겟스니 배한척 준비해다오』라고。

그리고는 빨리 다름질하는 특급차이건만은 나의 머리는 그것도 느리다시퍼 작구 채축질을 한다 뿐만아니라 나의몸뎅이는 부산행차깐에 실려잇지마는 나의정신은 벌서 수해지에 옴겨가서잇섯다 어찌되엇건 컴컴한 어두운밤여덜시반경에 기차는 삼랑진에 도달하엿다

◇

삼랑진은 아즉아모치도안을

줄알앗는데 나의예상과는 딴판으로삼랑진컨폭이 물속에 드러가버렷다나마잇는것은 겨우 져거장뿐이다그러나 나는 죽을

무릅쓰고 라도진영으로드려

갈사적으로 장군(張)을 차지려하엿다

◇

비는 창대가치 점점더퍼붓는판이다 컨기쫀차 꺼져버렷스니문자그대로 암흑천지이며 이세상에 나타난지옥이다 염라국이다 어느구석에서 사람이 얼마나죽엇스며 방금

이내몸도 어느순간에 밀

려드는 홍수에 둘려마시어 질는지도 알수업는 전후 분간못할처경이다 암중모삭(暗中摸索)으로 화물차(貨物車)깐에 피란하고 잇는장군을 겨우차저내엇다 그는단밧에

나의요구 가처대로될도리가로

엇다고 말한다 설령 배가잇다하드래도 그어두운밤에 급격히 흐르는락동강(洛東江)을건너날도리가 업다는것이다 어째스건 날개업는 나로서는 다시는해볼도리가업다 부득이 좌향좌(左向左)로방향을귀환할수밧게 업시되엇다 이럭케되고보니 내가차깐에서 그려노흔계획은 모다공상(空想)으로 도라가버리고마는동시에가차물농지대(浦浦)에오죽 나혼자만이먼저 도달하려든야망(野望)은컨연실패되고만것이다 이상예정으든것은

수재지에 가서나의실패한이

야기의 한쪼각이다

◇

이제는 통신을어떠케 빨리할것인가가 문제이다 나는이날밤 삼랑진소식을 정거장안 경관주재소에서 대강종합하엿다 부다치는

비바람에 몃번이나꺼저다가

권 까물까물하는 남포를미레서 권보지에 그렷다 삼랑진우편소의 컨신(電信)사무는 정거장대합실한구석에 림시로 가설한컨화선(電話線)으로 겨우 부산과 련락하고잇스나 손은 부족하고

바람쪼차 맹렬하니

도저히완컨한 취급을 바밸수업는형편이다 뿐만아니라 우편소사람들의 권유도잇고해서 나는 그권보를 부산이나 밀양(密陽)으로 가서칠수밧게업다고 작정하엿다 자!여거에 또한가지 생각해야될 문제가 나의압헤 가로노혓다 그것은 그때에

밀양으로 가는기차는이십분

만기다리면 엇서서 불과한시간 이내에 밀양우편소에 다일수잇는것이오 부산으로 가는기차는 기다려 탈라면약네시간 뒤에라야부산우편국에 다일수 잇는형편이다 가차운

밀양으로 냐? 부산으로 냐?

로나? 어두곳을 두고 나는 선택하기에한참주저하엿든것이다

◇

누구든지 가차운 밀양으로가서 컨보를 발송하는편이 빨르리라고상식적으로 생각할수 잇슬것이다그러나 나는먹해컨 진해사건(鎭海事件)당시에한번경험한 일이잇슴으로 이번에도 삼랑진우편소가 완컨한사무를 취급할수업게되어잇는 형편인속 가장가차운밀양 우편소에 컨보가폭주하게될것을 생각할수잇다 또한순도부족할러인즉 도저히 원활한사무취급을 바래기 이려운것이다 그래서 나는단연히 부산으로방향을 정하는편이 비록

차시간이 다섯배 밀양보

나려걸닌다하드래도 오히려 안전하고 시간으로속하겟다고 결정하엿다 삼랑진에서

쓴전보를 약세시간뒤에부산

가서 서울로띄웟다 그컨보가본사에도달하여 다른신문보다 얼마나 빨르게 자세하게 호외로 되여나가 경성안독자에게 보도되엿는지 어쨋는지 당시에 나는 알길이업섯다 그러나 적어도그당시수재활동의중심지인구포(龜浦)지방에만은 수제지실항사건까지 번듯이게된 우리

신문호외 가젹일번저배부되

엇섯다 다른신문호외보다는 아마하루종일락섯든것이다(쯧)

L、C記者

古邑

定州郡葛山面 金元銓

京義線古邑驛前 鳳濟醫院 院長 金鳳濟

京義線古邑驛前 籾白米業 石拔玄米 雜穀貿易 農具肥料 牛皮賣買 信成商會

京義線古邑驛前 籾白米業 石拔玄米 穀物貿易 肥料木材 三·合精米所

定州郡葛山面五山高普前 五山醫院 院長 趙震錫

定州郡葛山面 艾島漁業組合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日用雜貨 卸小賣商 新興商店 金逕銓

定州郡阿耳浦面 大山養鷄園 金聶聖

定州郡葛山面益城洞 五山高等普通學校

定州郡古德面 金起湖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 海陸物産 委托販賣 三成商會 李爽燁

定州郡古德面雲坪洞 雲坪振興組合 表代人 姜雲則

全北高敞郡高敞邑內里 高敞郡初等學校 教員會

定州郡葛山面光未洞 韓昌三

京義線古邑驛前 石拔玄米穀物貿易委托賣買 定州商會支店

京義線古邑驛前 五山文具店 嚴泰昇

京義線古邑驛前 古邑郵便所

京義線古邑驛前 丸星朝鮮運送株式會社代行營業所

定州郡古德面葛峴洞 白東旭

定州郡葛山面 金春億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賣買 大昌商會

定州郡葛山面 金貞濟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日用雜貨 李道欽商店

京義線古邑驛前 春明自轉車店 李竹春

定州郡葛山面 興麓學院

定州郡葛山面 光東學院 院長 文裕濂

定州郡古德面 李鶴壽 李虎洙 李鴻洙

定州郡葛山面興蘆洞 金履煥

京義線古邑驛前 林瑞龍

京義線古邑驛前 長樂館

定州郡葛山面五山村 金日煥商店

京義線古邑驛前五山村 雜貨文具米穀魚物靑果陶器 五山消費組合

定州郡馬山面木倉洞 塢川普通學校

京義線古邑驛前 穀物貿易委托賣買 泰興商會

京義線古邑驛前 酒類煙草各種和洋雜貨 三信商店 李學洙

定州郡葛山面益城洞 五山私立普通學校

京義線古邑驛前 清亭讓酎會社 古邑出張所 方元瑞

雄基 雄基

雄基 雄基釀酒所 兪致祐

雄基 金鴻九

雄基 金基道

雄基 李弼商

雄基 金養吉

雄基 德興商店

雄基 同仁醫院 金鍾夏

雄基 李亨植

雄基 東富商會 朴俊鶴

雄基 歐美洋服店

雄基 金彭錫

雄基 ゴム商 洪龍浩

雄基 金元精米所

雄基 兪鎭萬

京義線古邑驛前 司法代書人 崔春逢

定州郡葛山面 金壎植

京義線古邑驛前 和洋雜貨 各種文具一式 元昌商店 白元煜

京義線古邑驛前 綢緞布木 海陸物産 朝鮮燒酎 金洛亨商店

雄基 李志璇

雄基 雄一學院教員一同

雄基 尹聖斗

雄基 吳讚根

雄基 雄羅館

雄基 金重模

雄基 雄基精米所

雄基 鄭鳳宇商店

雄基 富春商店 金容圭

雄基 三輪商店 張明均

雄基 金鍾峻

雄基 濟生醫院 金榮培

雄基 和信商店

雄基 大陸運送部

慶興郡芦西面西水羅 鄭文錫

慶興郡芦西面西水羅 韓永甸

慶興郡芦西面西水羅 康義燮

謹賀新年

義城

義城 義城邑官公吏一同

義城 大本山 孤雲寺

義城郡山雲面 李泰大

義城郡春山面錦泉洞 義城鑛山 下井利熊

義城邑內 義城醫院 醫師 金弘鎭 ◎入院室完備

義城郡義城面 義城麯子組合

義城郡義城面 義城醸造株式會社

義城郡桃李院市場 桃李院酒造組合

義城郡酒造業者組合

義城邑市場 義城堂藥房 申炳元

義城邑內 숭명寫眞館 金德成

義城邑內 自轉車及附屬品販賣 裵聖滿

義城邑消西洞 各種鍮器製造販賣 韓春伊鍮器店

義城邑內 洋家具建築業材木販賣 大成木工所 金命乭

義城邑內 洋家具建築業材木販賣 甫信木工場 權允德

義城邑內 粧飾製造販賣 金敬祚

義城邑內市場 製菓都散賣 龍成商店 皇甫龍

義城邑內 染料原料各種雜貨 白守甲商店

義城邑內 親切叮嚀 九州旅館

義城邑內 設備完全 南一旅館

義城中央通 親切叮嚀 丸善旅館

義城邑內 玉雲商店 金麟澤

義城邑內 精米業 宋又述

義城市場 麥粉明太 一切雜穀 金在奉商店

義城邑內 和洋雜貨商 公信堂 李甲述

義城邑內 金銀細工所 林南山

義城郡安平 永信商店 李庸起

義城郡舍谷面新里洞 酒造場 金奎濚

義城郡召文面大里洞 酒造場 朴魯珉

義城郡安平面市場 酒造場 金圭喆

義城郡丹村面細村洞 酒造場 金碩鎭

義城郡點谷面鳳岩洞 酒造場 黃三英

義城邑內 金圭植

義城面 協議員 柳萬壽

義城面 協議員 飛田彌吉郎

義城面 協議員 金圭壽

義城郡舍谷面 學校評議員 申晋協

義城郡舍谷面 舍谷面協議員 李元羲

義城邑市場 海陸物産商 大和商店 金渭暘

義城邑市場 綢緞布木商 興萬商店 千萬植

義城郡義城面帳竹洞 合資會社 共益社

義城邑內 日用百貨都散賣 鍾路百貨店

義城邑內 綢緞布木各種雜貨都散賣 泰和商店 姜利秀

義城邑內 綢緞布木各種洋品都散賣 益盛泰商店 秋鎬瑾

義城邑內 米穀貿易商 金東弼

義城邑內 米穀貿易商 朴睦彛

義城市場 綢緞布木各種雜貨 黃鳳俊商店

義城邑道東洞 製菓及諸雜貨 禹仁達商店

義城邑市場 綢緞布木商 泰興東本店

義城郡安平市場 文房具諸雜貨商 河甲祚

義城郡邑內 朴琪元

義城郡山雲面 李滸

義城司法代書人會

義城郡點谷面 趙鏞昇

義城郡點谷面 柳時桓

桃李院市場 米穀貿易商 李桂守

桃李院市場 米穀貿易商 金鍾珪

義城郡鳳陽面三山洞 實業家 任膺宰

義城邑內 米穀貿易商 李正雨

義城邑內 牛島洋靴店 金漢燮

義城郡 義城金融組合 職員一同

義城郡 歸川金融組合 職員一同

義城郡 點谷精米所 柳時演

義城邑內 共榮自動車義城停留所 綢緞布木 和洋雜貨 都散賣商 主任 金增壽

義城邑市場 麗水天一ゴム會社 義城販賣部 權純壹ゴム商店

義城郡 義城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丹村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點谷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舍谷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丹村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義城郡 玉田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義城郡 春山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義城郡 山雲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義城郡 安平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義城郡 佳音公立普通學校 宋有晩

義城郡春山面玉井洞 酒造場 池秉植

義城郡玉山面 酒造場 朴泰英

義城郡舍谷面陽地洞 酒造場 朴三俊

義城郡 春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鳳陽面長 李鴻九 同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山雲面長 金熙淳

義城郡 山雲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玉山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佳音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召文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安平面事務所 職員一同

義城郡 義城郡守 權重煥

義城郡邑內 金汀旭

義城郡佳音面市場 酒造場 具然台

長城

湖南線長城驛前 新舊雜貨 綢緞布木 三光商會 千代田生命代店 電話五九番

株式會社 湖南銀行長城支店

全南道議員 金相弼

湖南線長城驛前 和信自轉車商會 主 柳宗南

長城郡廳 職員一同

長城尋常普通校長會

長城驛前 長城酒造株式會社 電話六五番

長城驛前 永信自轉車商會 崔永基

長城驛前 閔大熺

長城驛前 藥局長崎 藥學士 熊澤寛二 電話六一番

長城驛前 湖城農場 文在銛

長城驛前 朝鮮料理 秋月館

長城米穀商組合

長城驛前 谷原雜貨店

長城警察署

長城驛前 仙頭醫院

南葵産業株式會社

長城面鈴泉里 長城麯子株式會社

金彛權

湖南線長城驛前 貨物運送業海陸物産貿易 丸三商會自動車部

月坪市場町 長城醫院 電話五八番

末松鹿吉

森溪面社倉里 壽山醫院

森溪面社倉市 貨物自動車部 白獜圭

長城森溪面社倉 社倉酒造場

森溪面社倉市 李鍾淵

南面三台里 林鍾華

東化面事務所 職員一同

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北二面 職員一同

森西面 職員一同

長城面 職員一同

黃龍面 職員一同

珍原面 職員一同

北一面 職員一同

長城郡北上面 職員一同

長城郡森溪面 職員一同

北下面 職員一同

西三面事務所 面長 金喆煥

清道

京釜線清道驛前 大東商會 李鍾杓

京釜線清道驛前 清道酒造株式會社 電話九番 振替釜山四七三九番

豊角面職員一同

華陽面職員一同

伊西面職員一同

清道救世醫院 金道潤

安琪澤

金景坤

清道體育俱樂部

無名氏 清道靑年會長 金溶佑 裵演驥

山清

山清郡山清面寒洞 山清朝鮮酒製造場 吳明鎭

山清郡山清面寒洞 山清郡麯子製造組合 取締役組合長 申台弘

山清郡梧釜面 梧釜面職員一同

山清郡山清面寒洞 和洋雜貨食料品 文房諸具鐵物 金其正商店

山清郡山清面寒洞 山清自動車部 山清印刷所 崔載業

山清郡山清面寒洞 山清運輸部 趙翊濟

李鍾祿

山清郡車黃面 車黃面職員一同

山清郡山清面寒洞 綢緞布木日用雜貨食料品一式 互信商會 崔烈萬

山清郡山清面寒洞 山清警察署 職員一同

山清郡山清面寒洞 生草面長 朴殷陽

山清郡生草面於西里 山清金融組合 生草支部

山清郡生草面於西里 生草醸造場

山清郡生草面於西里 生草郵便所長 李基鉉

山清郡生草面於西里 日用雜貨、文房具鐵物 椋尾文助商店

山清郡生草面於西里 日用雜貨、文房具鐵物 山田角市商店

山清郡生草面於西里 有志 具性根

山清郡生草面於西里 有志 郭相舜

山清郡生草面於西里 生草公普校長 唐津操

山清郡車黃面 黃梅醸造場 吳元澤

楊州

楊州郡廣積面 面長 金觀鎭

楊州郡廳 職員一同

楊州郡州內面 面長 盧琦錫

楊州郡榮宅面 有志 李嬿

楊州郡白石面 公立普通學校長

楊州郡望月寺 主持 金龍澤

京畿道會議員 卞在洙

楊州郡 白石面事務所 職員一同

八十餘住民無視코 借地料를引上
明渡申請으로紛糾는尖銳化
借地人對策講究中

【平壤】평양부내 서평양 역전공문상(孔文爽)리영식(李英植)씨등 십륙호주민들은차지료(借地料)문제로 부내차관리(館里)장동환(張東煥)씨를 상대로분쟁을일으키고 맹렬히 싸호는중에잇다 권과서평양역권토지는권소유자이든 모씨(某氏)에게 평팔전식의차지료를지불하고주택과저원을만들고이래수년간안주하여오든중이든바작추에장씨가권과토지를매수한후평삼십전식의차지료를지불하라고요구한데분규가발난하여이래분규는계속되엿다 장씨는 법률의힘을빌어 가지고모든주민까지에 집을 헐어가지고 나아가라고 나아가라는명도내용증명(明渡內容證明)을발하여 분규는첨예화하고잇다

장씨가 요구하는대로 삼십전식을지불한다면삼십륙원내지사십원의차지료를지불치안으면안된형세에일으러이러케되여서는 도저히 생활을 할수업다는것을 두두이 지주장씨에게 진정햇스나 어데까지나 자긔의주창을굽히지안는터임으로 업동에 직면한십륙호주민 팔십여명은 장씨의 무리를 통란하야이에대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黑橋看東間道路 建橋處가十餘個所
當局은我不關焉態度

【黑橋】황해도흑교(黑橋)와 평안남도간동(看東)사이의도로는 등외도로이지만 그교통량으로보아 당연히 삼등도로로하여야할것이라는바 근일에는 교량이 십여개소나 파괴되엿스나 일제 개수에착수치안어 저기자독차는 물론 우차도통항치못하는현상이매 주민의불평은 실로심한바잇서 당지주민들은 그해결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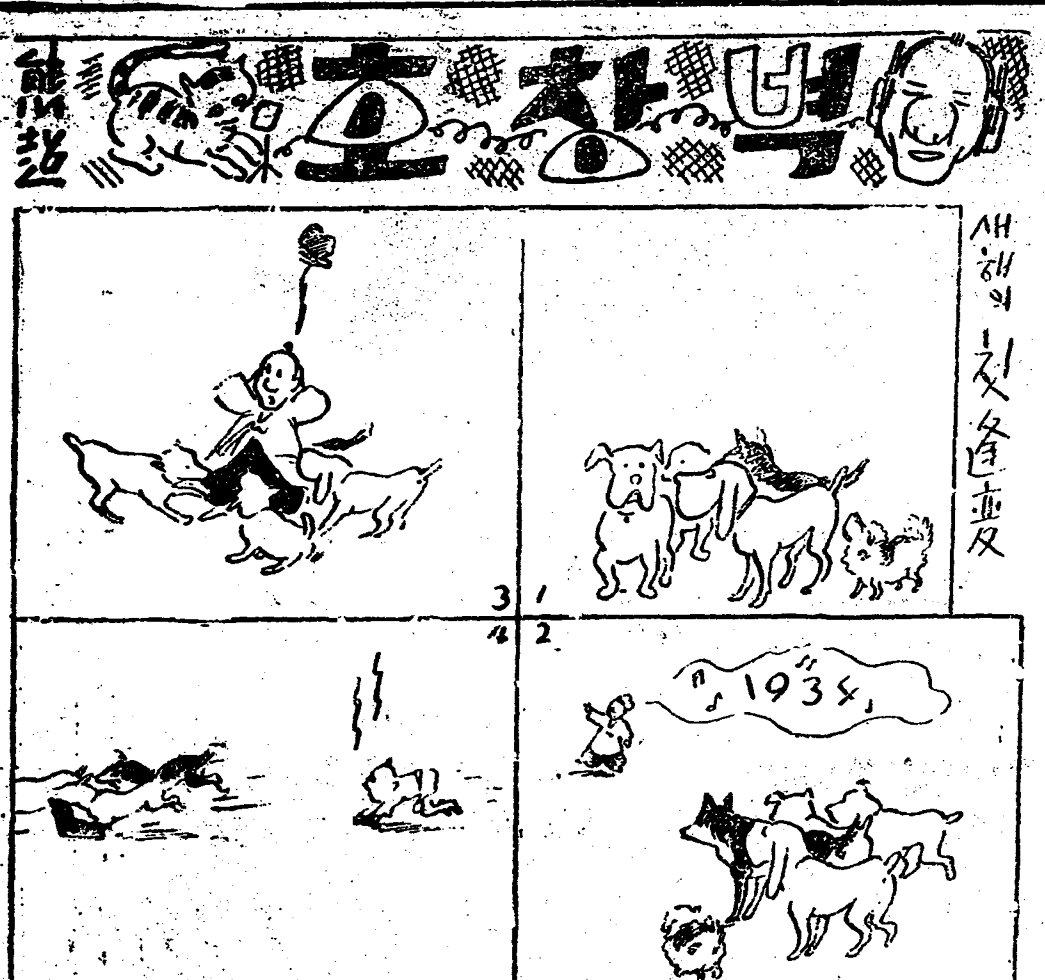
江陵農林昇格 急速實現無望
學校當局에非難漸高

【江陵】루보=강릉농업학교승격문제에 대하야는 루보한바잇거니와 갑종승격신청서는 별서 도당국의손을거처 총독부로진달이되엿는데 총독부에서 아즉 단안을내리지안은채로 금일까지 잇는것이라한다 여하튼학교당국은 강원도당국의 의사발표가 거의갑종승격이 소화팔년중에 실현될가능성이 충분함으로써 금년일학년생도의 입학을허락하고 당시에학부형에게 갑종학교로 되는것을 말하야 금후 오개년동안 계속하야 성실히 자제를 가르키도록 말하며 동시에 학과도 갑종정도의 것을사용 하야왓든 것인데 지금에와서는 승격문제가 년도(年度)내에도 실현될가능성이업슴으로 학부형측에서는 만일년도내에 승격이 실현되지안하면 다른 학교에로전학시기고저 하는 의사를가진자가 일학년 생도의 반수이상에 이르리라 하며인방이런중대한 문제에대하야 학교당국자는 학부형들과 유긔적련락과 의론조차업다하야 학교당국을 비난하는여론도 잇는듯한데 여긔에대하야 유력한학부형모씨는 다음과가티말햇다

【學校當局이無誠意】學父兄 某氏 談 승격은 작년내에로 실현될듯이 학교당국에서 말하얏슴으로 우리는 학교의말만 밋고 왓섯는데 이것에대한 저간의 사정을 한등말도 안해준제로 해를 넘김에대하야 너머도당국의 무책임암에는 놀냇분입니다 여하간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우리들을 모혀서 저간의 사정을보고해주며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도록하는회합이잇스면 합니다

作料徵收에 斤數을詐欺
結局發覺還償

【靑丹】 소작료징수에대한부정사건이 나날이 늘어가는오늘



年復年激增되는 鐵原金組員負債
每人當一百七拾餘圓

【鐵原】철원의삼금융조합(東州鐵原第一鐵原第二)에서이천구백여명이나 되는조합원에게 대부한 금액을조사해 보면작년말현재로 그총액이 오십만칠천이백칠십원이라 는데 이제조합원의인당으로 보면일백 칠십원식이라하며 그중체납 처분당한것만도 긔의일할가량 인바그정도는 해가감을따라 더욱심각화하여간다고한다

남에잇서 저울의근수를 속혀소작료의 엄청난가봉을 한악하한 사실이 도생겻다 들은바에의하건댄 해주군 해주읍(海州邑)김영태(金泳泰)씨의 소유토지가동군추화면만송리(秋花面晩松里)에잇는바지주는자긔집차인량모(梁某)라는 자를보내여 타작을식히는데긔량모는 지주가차지할 섬(石)에는 미리◇섬에다가 표지를못처가지고 교묘히 소작인의눈을속혀가며 저울질을 용간하야 매섬(일석백삼십근)에 칠팔근으로부터 최고열닷근(근)까지의 엄청난가봉을하야 다수한 소작료를 증수하다가 중도에발각되여량모는 여러소작인에게 매까지어터밧고 쫏겨가버렷는데 이소작인들은지주는다시사람을보내여사실을조사한후가봉된것은도로소작인에게내여주엇다한다

新電에賣渡키로 株主總會에서決議
假契約原案一部修正코
宣電賣渡問題一段落

【宜川】일대문제이든선천전긔주식회사매도건은 지난달 십오일에 선천중역회(宣電重役會)에서신전(新電)에 팔기로결의하고 십륙일부로 상방이가게약을 서립한것은이미 보도한바이니와 매도의지 대권리를 가진대수주중역회에서 매도키로 결의한것임으로 선전이 밀경신전에팔녀갈설은 누구나 다알고잇섯스나 이문제가사회에 여론이만하짐에따라 주주총회에서 연중역회의원안대로무사통과가될는지 흥은어떤반대로 파란이나생기지안을는지 일반의 주목을끌고잇던바 지난달 삼십일일오후한시에 이 매도 문제를 완전히 결정 하여 버리라고 선전주주 총회를 동 회의실에 서개회하엿는대 개회벽두에 과연소수주주측으로부터 매도 반대문제가 니러나 일시장내공긔는 험악하여 장시간토의를 거듭하다가 결국다수가결로 신전에매도안만은 결정이되엿다 그러나 중역회에서 제출한 원안중다음두가지는 수정키로 되엿다

一、매도금 십삼만원을 신전명의로 은행에 예금키로한건을 선전명의로할일

二、중역회에서오월말표준재산으로 십삼만원에 매도키로한건은 하반기(下半期)십일월말이지낫스니 하반긔 배당금삼천오백원을 배당하고 십삼만원에 매도키로 할일

修正案承認이 殘有한問題

선전에서는 주주총회 결의로신전에팔기로 되엿스나 지난달십륙일에 체결한 계약원안이대부분수정을 보게되여 신전에불리케되엿는데 신전에서 수정안이 다소불리하드라도 승락을하고 매수하랴는 지금 후문제가큰주목인데 금후 이매도계약성립에달녀잇다고한다

龍山公普校 學年延長運動
期成會組織코陳情

【永同】충청북도 영동군 룡산공립 보통학교는 종래사년제로서 동지방학부형들은 대단한불평을 늣겨오든바 벽전부터연장운동을 시작하야 이래계속하야왓스나 아무효과가 업섯는데이번에는긔이히 목적을 이루려고저간동여장서형선(徐亨善)씨와 유지장병준(張秉浚)씨외 륙인의발긔로 동교학년 연장긔성회를 조직하야 긔금천여원을적립하고 진정원을 군당국에파견하엿는데 동군수는 오는이월에산 면서하기까지 답변을할수업다고하야 진정원들은 그냥도라오고마럿다고한다

甕津馬山面에 連日火災로騷動
◇人心이매우恂恂

【甕津】황해도옹진군마산면 온천리(黃海道甕津郡馬山面溫泉里)에서는 년일비가오는듯마는듯하드니 지난이십칠일 에는 비오는밤중 수대광산 사무소에서 화재가잇섯고 이십팔일에는 마산시내에서오운내외예삼차나발화되여 일반시민의 의문을 끌게되엿는데 이십구일밤에는 시내신용려관굴뚝으로부터또불이 낫섯스나 즉진화하엿는데 년말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가티련삼일식불이나슴으로인심이 터 송송한다고한다

金洪秀氏美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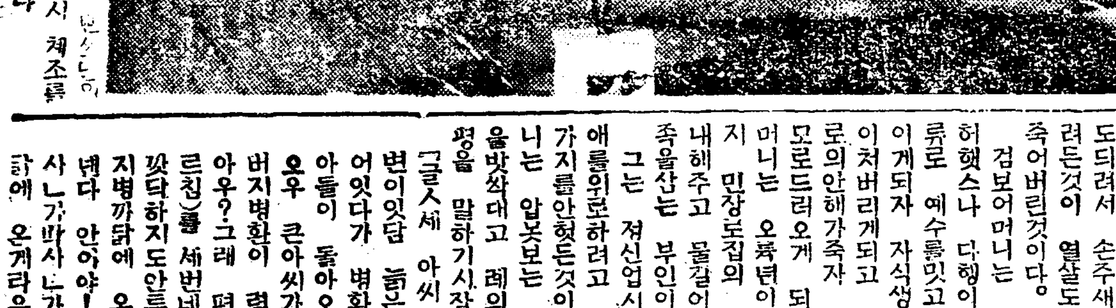
【金浦】경성부 다옥정(京城府茶屋町)에 사는 김홍수(金洪秀)씨는 수일전에 그의고향인 김포군검단면(金浦郡黔丹面)에잇는 검단공립보통학교(黔丹公立普通學校)운동장 확장비로 현금백원을 긔부하얏슴으로 해면인사들은 긔 김홍수씨의 특지를칭송한다고한다

晋州郡內의 正租長期貯藏

【晋州】 진주군에서는장긔인저장(長期貯藏)실시를하기위하야 군청회의실에 면장회를개최하고 만반을 토의한결과진주군에 야적(野積)과 농창(農倉)을합하야 삼만삼천 륙백사십오석을 장긔보관하기로 된바현하의 대금은 벼한근에오전팔리의 계산으로 지출하기로결정되얏다는데 일반은그 실시의하로라도 속함을 갈망한다

◇金泉高普의耐寒運動

김천고등보통 학교에서는 작년십이월 십칠일부터 이십일일까지 교정으로 [illegible] 운동장에서 체조를 실시하엿다고한다



江東電燈架設
明春四月實現

【江東】평남강동읍에전등가설운동을 한다고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그회대표들이 지난번 평양선교리 조선전긔주식회사에가서 전무취체역 길전영삼랑(吉田英三郎)과회견한결과 명 소화구년사월에는 실현될터이라는데 느지도 십월까지에는 완성하리라고한다

漢銀支店과 平壤商界人間和解
商界의良風을維持

【平壤】한성은행(漢銀)평양지점에서 몰락한상인인 상점경홍덕(慶興德)정리당시에평양에 고유한 파산자의잔존재산을 각채권자가 공평히분배하는 량풍미속을무시하고황저채권액사천이백여원을 단독회수한 것이도회선이되여 작춘이래 평양상가의상인은 한은지점사이에 커다란분규가일어나 급기야 법정에까지이문제를끄을고가서시비를 계속하든바 수일전한은에서독회수하엿든 사천이백여원 과소송비용을지불하기로하고타협이성립되여 원만한해결을 짓기에일은모양이다 그래서 평양의상계에서 루백년준수리행하여오든 량풍 미속은 량풍미속대로의 유지를하기에 일으럿고 장시일을싸흐든동문제도 신춘을마지하여 완전히 해결을지은세음이다

懸賞當選小說

暴風雨지난後 【五】

李巴村 作 熊超 畫

편지(2)

초상치른뒤에 객업는 집은 쓸쓸하엿다。

정애와 정애를위로하기위하야 공동묘지까지 딸어가지안코잇는 검보어머니 가잇슬뿐이다。

방과 마루와 집안의 구석구석에서는 코를찌르는 송독냄새가 차잇슬뿐이다。

검보어머니는 그 수다스러운말참견과 남의 흠집을 꼬집어내기로 잘알리우는 사십안짝의과부엿다。 그는 미련하리만큼부즈런한것과 조고마한일에도 땀을철철흘리면서 애쓰는것이 남의 호긔심을끌고 동정을끌지만 항상 염소의우름가튼 잔소리로말미암아 고임옴밧지 못하는것이다。 그의잔소리십한것은 뾰족하게생긴입술만보드래도 넉넉히 짐작할수가잇섯다。

남편도 친척도 아무도업고 자식이라고는 꼭하나 검보가잇서서 고놈의덕도보고 장가도드려서 손주새끼나 입어보려든것이 열살도지내지못해서 죽어버린것이다。

검보어머니는 밋처다십히슯허햇스나 다행이 민장로의권류로 예수를밋고 예배당에단이게되자 자식생각을 무심중이저버리게되고 이어서 민장로의안해가죽자 그해로부터침모로드러오게 되엿다。 검보어머니는 오륙년이지내 오늘까지 민장로집의 밥해주고 빨내해주고 물길어주는것으로만족을산는 부인이엇다。

그는 젹신업시 울고잇는정애를위로하려고 묘지까지딸어가지를안햇든것이다 검보어머니는 압보는 정애코밋헤입을방싹대고 례의 잔소리와불평을 말하기시작한다

『글ㅅ세 아씨 집안에 이런변이잇담 늙은애비한분이남어잇다가 벼환이 들엇는데 아들이 돌아오우 딸이도라오우 큰아씨가 온게야 아버지병환이 렴려돼서 온줄아우? 그래 편지(근보를가르친)를 세번네번식 부처야 꼿닥하지도안튼아씨가 아버지병까닭에 온줄아우? 안임네다 안어야! 그 평양의 사나가바사ㄴ가 하는녀석까닭에 온게라우 내 다안는걸무어 그녀석이 언제봣다구 공동묘지까지 딸어가우다 그러구그러구 하는일이 잇거든 딱하지 딱해! 고로케 모르는척하면 누가 모르는줄알고 어이업지 에이 망칙해 퉤! 퉤!』

검보어머니는 들창을훨 열고 가래침을배터버린다

『그저 불ㅅ상한게 아씨 한아라니까 암못보는게 점천지 원한이라니까 아씨눈만밝엇다면 그런추한꼴을보구 참어요? 못참지! 못참어! 아씨야 참 인저만코효도만코 복밧을걸 — 큰아씨든가 도망간 서방님이든가 모두 필필 끔는 지옥으로가야 해요 장로님이 돌아가실때 눈이나 감으신줄아우? 그런것을 생각하면 내가죄송스럽지! 내가』

이번에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씻스며 코ㅅ물을 훌적거린다。

정애를 위로하기위하야남어잇는 검보 어머니의말은 위로라기보담 더 속을건드려준셈이다。

『어멈! 글ㅅ세 왜 그럿케함브로말하오? 누가듯드래도창피하지안소? 언니나 내가 어멈이나 인저 다갓치 한집에서 살어야할텐데 그럿케 원망한다 엇더케두언니두는데 그런말이 드러가면 엇저라구?』

『엇저라구?』하면서 검보어머니는 말을가로채다

『그래 내가 업는소리를녓길래! 또 그아씨가 나하고한집에서살어요? 난 별서밥바가지를 장만햇는데! 오늘저녁부터라도 엇어먹으러나갈걸 — 암 그야 아씨만갓타면야그러치만 큰아씨의성질을 난잘 알거든! 나를 얼마나미워하길래 배암처럼미워해요 배암처럼 참 난 아씨가를떠날것을생각하니 가슴이압퍼』

『아이참 왜 그래요?』

정애는 목청을노코우는 검보어머니를 도리혀 위로식혀다

하고 말하려는 검보어머니는 『그런데 참 큰아씨가!』 별안간말소리를딱끈치고 래도를고친다。장례를맛치고 돌아오는 정준의 신발소리를드른까닭이다。

強くて徳 富士自轉車

大景品附賣出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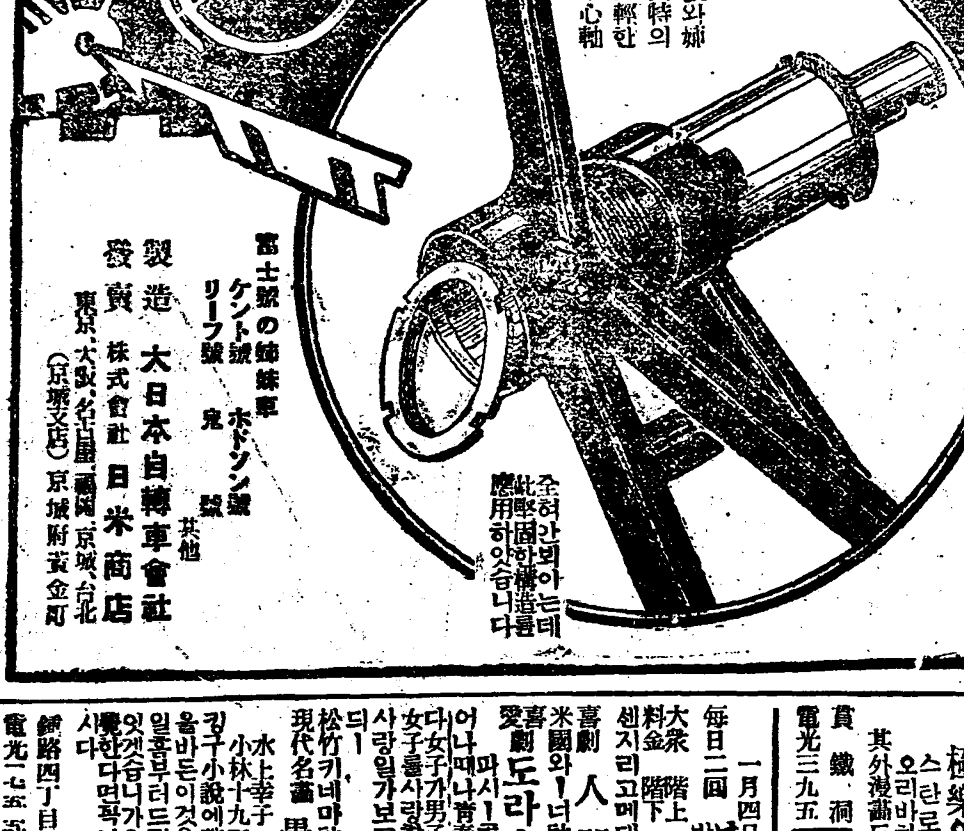
一等 滿蒙旅行御招待

一臺買上하신분에景品劵進呈

詳細는特約販賣店에서問議하시오

富士號와其姉妹車는材料와加工이特히優秀한外에여러가지特長잇는構造에依하야

스피ー드한輕快味와 修繕無用의强力함이 잇슴니다



富士號와姉妹車獨特의强하고輕한回轉中心軸

全혀간뵈이는데 此堅固한構造를應用하얏슴니다

富士號の姉妹車 ケント號 ホドソン號 リーフ號 鬼號 其他

製造 大日本自轉車會社

發賣 株式會社 日米商店 東京、大阪、名古屋、福岡、京城、台北 (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

朝鮮레코ー드界에未曾有의好景氣時代를招來한 劃世紀的廉價盤(十二月二十日旣發賣)

키린조선레코ー드

一枚定價六十錢

兩面十吋盤 南道소리、西道소리、넌센스、流行歌、朝鮮古典樂等十種

金振門……編 古代悲劇 沈淸傳

避寒と越年

暖かい溫泉郷

東萊・儒城・溫陽・白川・信川・龍岡・陽德・朱乙・

汽車賃割引 各指定駅より 三割引 五割引

朝鮮總督府鐵道局

投網

새잡는그물 四分目 五分目 五分目 [illegible]

其他各種낙시제구 새잡는끈끈이

魚具卸商 吉備商會 永樂町二丁目 電話本三一四番 振替京城四三二八番

保健經濟 避難整腸 生食 法說明書及靈術案內送呈要 二錢切手三枚

滋養 乳酸 液新發明品實物見本送呈要 二錢切手五枚

京城東大門外新設里朝鮮保康會

新春第二週四日大公開 全勝主義新興キネマが第二週半島映畫界に巨彈する!! 大毎・東日新聞五百萬の讀者を熱狂させる問題の豪華篇大公開!! 入江!! プロ超特級現代劇 新興キネマ初春提供 大阪每日東京日日連載小說映畫化

新しき天 前篇 暴風雨の中の灯 原作 牧逸馬 撮影 青島順一郎 監督 阿部豐

入江たか子二役・岡田時彦 主演 助演 中野かほる・月田一郎・桂珠子・菅井一郎・歌川八重子・村田宏壽・見明凡太郎

悲しい宿命の戀に咲く母なし千鳥人の世の冷たい雨と嵐に打ち砕かれし南海子と信也の愛し魂は相抱きて南の彼方に忍び泣く……ああ哀れ人生苦難の行路に新しき天の扉はいつぞひらく

新興キネマ提供 文藝春秋オール讀物號所載 嵐寛壽郎プロ超特級作 原作 [illegible] 監督 [illegible]

瀧の與平次 [illegible]の霧

嵐寬壽郎主演 助演 花房銀子・淡路千夜子・嵐德三郎

永樂町一 電話本二二二 中央館

世界의人氣를獨占한名畫 一月五日브러超特別大興行

本版 와너나쇼널超特作全發聲努級日 마빙・리로이氏監督

假面의米國 全十卷

巨星폴무니ー氏一生一代의最大熱演 亞米利加밀림뽀ー드래뷰의推薦映畫의第一位를占領한問題篇! 조지아洲鐵鎖囚人의悲痛한絕叫를如實히描破하여文明의假面에감추인白晳人種의非人道的慘虐性을暴露하여二十世紀의生地獄으로서米國各方面의物議를惹起하여너한가同洲의브리ー드百萬弗의訴訟을提起한名畫! 로바ー트・E・반스作의實話「진자鐵鎖脫獄囚의手記」의映畫化!

日本版 極樂의兵隊 全八卷 스탄로ー래ー 오리바하ー디ー 共演

其外漫畫도잇슴니다 스림完備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一月四日낫부터 每日二回 낫一時 밤七時 始映

料金 大衆 階上 十五錢 階下 十錢 均一

센지리고메데作品 喜劇 人間征服 全卷

米國와ー너社超特作品 喜劇 도라오는令孃 全八卷 파시ー루ー스미라ー孃主演

어나때나靑春은사랑을부르짓는다 女子가男子를사랑할때엇더한것이참된사랑일가보고드르시라 愛의빼로디!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畫 愚弟賢兄 全十卷 水上幸子 花岡菊子 小林十九二 若水絹子 主演

킹宁小說에戰記되여서만흔紹讚을바든이것을映畫化한것입니다 일흠부터드러보아도얼마나興味잇것습니가 우리가한번兄弟을生覺하면 눈물겨운우리의두서야할名畫올시다

鐘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讀者利用欄

求宿 專門學校入學準備中이三人兒童잇는곳에 家庭敎師를志願함 市內淸雲洞五二之六 [illegible]

醫藥 醫藥業者의營業月報를發行하오니 [illegible] 忠南扶餘郡五山面 [illegible]

治療 귀먹은것(難聽症)을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治療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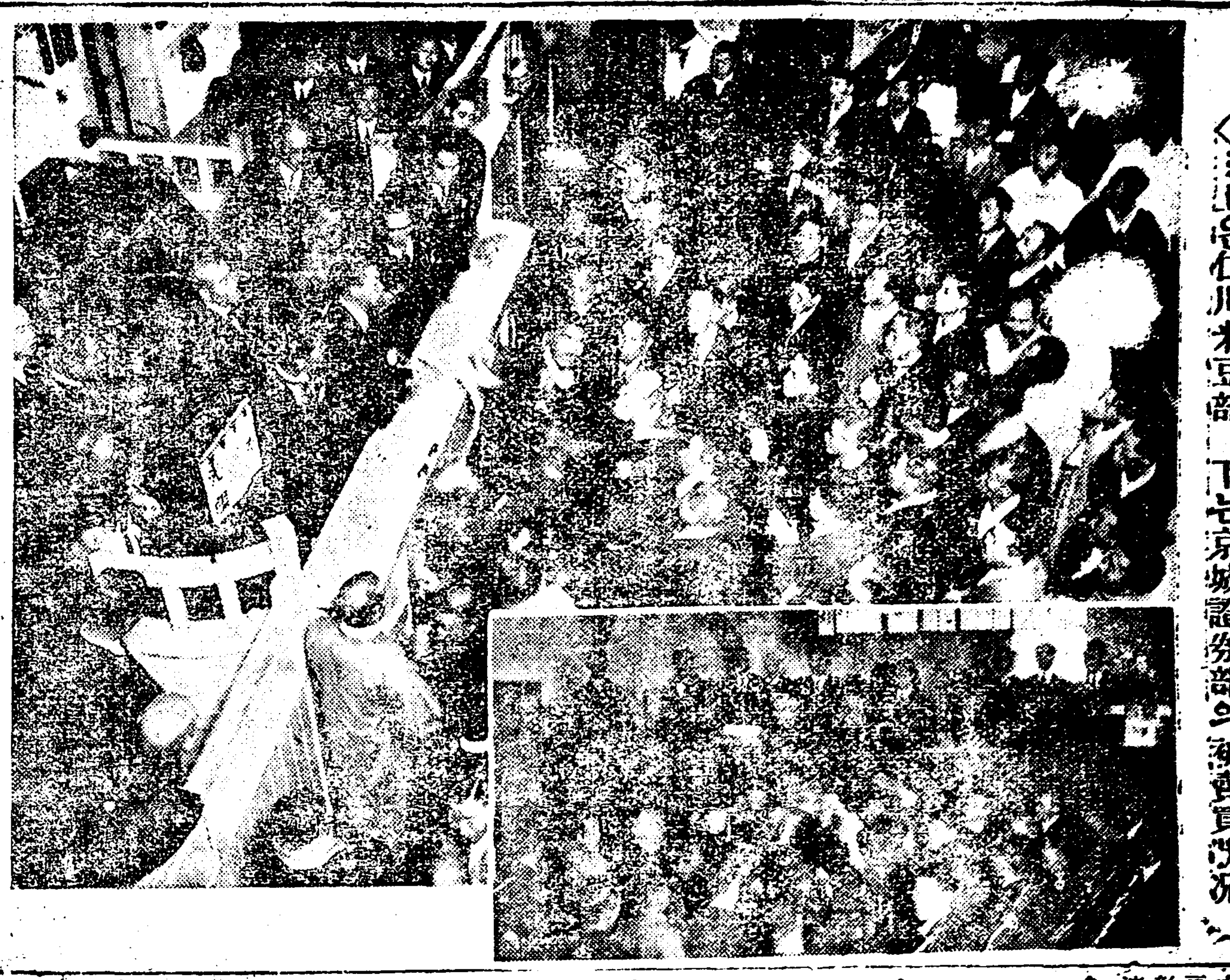
進呈 朝鮮日報讀者에限하야 [illegible]

求婚 二十二才以下의 [illegible]

求婚 二十四才의溫良한婦人이온대 [illegible] 朝鮮日報天安支局內

初立會日의朝鮮取引所

◇…上은仁川米豆部、下는京城證券部의初賣買狀況



十分부터始作되엿다 立會前에 朝鮮取引所荒木理事長으로부터 式辭가잇슨後 昭和八年度各米豆取引店의賣買及受渡에對한表彰式을擧行하엿는데 賣買及受渡成績의等級은左記와갓다

◇賣買成績의表彰
- 一等 九鬴取引店
- 二等 金谷取引店
- 三等 丸玉取引店
- 四等 ○〃取引店
- 五等 金太取引店

◇受渡成績의表彰
- 一等 河竹多柳三郞
- 二等 河新田義民
- 三等 小林幹三

向方未定의 初立會의場面

昨年末에頑强히大納會를告한米價는越年後에繼續頑强할것으로 누구나 豫期하엿스며兼하야越年하는동안에 産地의出廻가遲遲不振하엿슴에도不拘하고 今朝의初立會는 比較的頑重形勢로中限은二十圓七十錢으로客年納會價에比하야 十丁反落을告하고 新甫三限은二十圓七十九錢인備히九丁上鞘로發會되어幾分軟味를添하엿다 洋洋한將來의米界의波瀾이果然何如할지볼으나 米穀統制法의漸次로權威를發揮하는觀이不無하고 그反面으로는 米의實勢가容易히高價를不許하는嫌이또한不無한今日인만큼此에서 十分見機한後가아니고는方向을確定하지못할것갓다

오히려市는閑散하나마 産地賣惜으로弱含保合狀態에下落하야 ㊁三等二十圓二十錢四等十九圓九十錢

釜山弱含 出廻一三〇、〇〇〇叺今日의初立會는買氣가顯著히減損되어朝米一二五、二〇〇叺의祝賀賣買로 大活況을呈하고㊁三等二十圓十五錢四等十九圓九十錢에 五錢乃至十錢弱含

大邱下支 初立會의期米는鈍重을보고 地場의買僞取에依하야 取引이不振하고閑散하게推移하야賣物이적은만큼 下値는든든하고氣配는㊁三等十九圓八十錢 四等十九圓四十錢으로十錢低에下支

南浦頑强 期米反落이나 마一般春高豫想으로 買氣頑調이오 取引이比較的적어㊁三等二十圓六十錢四等二十圓四十錢으로頑强保合

群山反落 出廻十九叭俵春高豫想으로産地는大槪賣惜品薄이나 株의低移와日本買氣薄으로氣配하게推移되엇다 初市로서는活氣가업고 一、二十錢反落인㊁三等二十圓四十錢四等二十圓二十錢

木浦焦付 期米의形勢不味로場面不立하고賣買雙方共히形勢를觀望하야當用補充과祝賀賣買뿐인平穩裡에焦付하야㊂三等二十一圓十四錢 二十圓七十錢唱

株式

市勢와商況 (四日)

新立會場況 至極히平凡 春高업시無氣力

1933年의大納會는 鈍調裡으로初立會를하얏스나 熱이업고新氣力한 稀有의沈滯裡寄付되고引際小高裡前場을맛치엇스니 때는十一時四十分이엇스며後場은休會이엇다

春高期待가업시平凡이더니 1934年劈頭의 初立會도亦是新春가튼氣分이업시 至極平凡하얏다 여러가지 意味에잇서서 큼직하고도큼직한波瀾이豫想되는 어해와初立會가「히니구로」平凡한것도 엇던意味에잇서는자미잇는現象이엇다 卽是日午

十錢에大引되엇는데 强氣로서는低金利의拍車와「인푸레」로全面的 購買力의增進이 逐日市場人氣를 波瀾케되리라 하야前途를 樂觀하는터이나 極端的樂觀이나 一本調子의騰落은期待함이無理하고 亦是相當한波瀾과混亂이 繼續될것은新年劈頭에 미리覺悟하여야할것이오 社會不安의具體化와國際的危機等에依하야 資本主義經濟가 危險에頻한經濟等도充分히考慮에너어가지고國際情勢國內情勢에對하야 深甚한注意를하여야할것으로보이는바果如何

各店取組狀況

	賣力	買力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初立會價와 大納會價比較

	今年初立會價	昨年大納會價	比較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鍾新	[illegible]	[illegible]	同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同新	[illegible]	[illegible]	同價
帝人絹	[illegible]	—	—
日魯	[illegible]	—	—
日魯漁	[illegible]	—	—
淺野新	[illegible]	—	—
日毛紡	[illegible]	—	—
安取	[illegible]	[illegible]	同價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朝信	[illegible]	—	—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朝鮮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殖銀新	[illegible]	[illegible]	同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同價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鮮鐵	[illegible]	[illegible]	同價
同三新	[illegible]	[illegible]	同價
金剛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金電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前九時 새意匠으로裝飾한立會場에서 初立會式을行하얏스니 먼저小杉理事長의인사가잇고昨年下半期中 賣買優秀한優良取引員五名에게 表彰狀을授與하얏고 白井取引員組合長의答辭로 開式한바式中 入電이東京東新百七十六圓六十錢으로昨年大納會價와同價이오 大阪大新 百三十二圓四十錢으로亦是同價이엇슴으로 처음의騰折際

春高期待解消 新年方向如何

昨年大納會價와 同價로發會된東京東新은 完全히春高期待가解消되엇고 東京前場이百七十四圓九十錢의低價까지잇고六圓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三、九五
一回四分利	一〇八、七〇
二回四分利	一〇八、七〇
佛貨四分利	一〇一、五五

株式 (四日)

朝取短期 · 算定代引日步 · 東京現株 · 東京短期東新 · 大阪短期 · 大阪短期氣配

値段	[illegible]

期米

和氣靄靄裡 新春初立會 廿圓七九錢寄會

昭和九年의새봄을 마지하는初發會는 新春和氣靄靄한가운데서 場內울깨트리는듯한 拍手聲裡에始作되엿다 阪地는中限二十三圓〇九錢으로 先限은二十三圓二十八錢인 九丁上鞘로發會되고 當地는中限二十圓七十錢新甫三限은 二十圓七十九錢인 亦九丁上鞘로 發會되엿다 그런데大體의場面은 比較的軟弱하야 阪地五十六錢으로反落止場하얏슴을 伴하야七十三錢에場을止하엿다

各地期米新舊鞘

	大納會	新甫發會	鞘
大阪	[illegible]	[illegible]	一〇上
東京	[illegible]	[illegible]	六上
神戶	[illegible]	[illegible]	一四上
下關	[illegible]	[illegible]	二一上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一三上
朝取	[illegible]	[illegible]	一二上
釜山	[illegible]	[illegible]	六上
大邱	[illegible]	[illegible]	同鞘
群山	[illegible]	[illegible]	一三上
木浦	[illegible]	[illegible]	一三下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一〇下

新春初發會式 賣買及受渡表彰

新春의初發會는四日午前九時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 正米不冴로 東京側地場正米系中東側의 採算系는 上鞘發會를 絕好의賣場으로하야連節賣進하얏고 이에對하야 最低値巾込旺盛으로 浮動米一掃되리라는 見解로 地場强氣中谷株式側 三品側朝鮮別派 來名側 神戶別派等이 押目買進하얏다

各地正米

京城小弛 産地賣物이잇合과環境不透明으로氣配五錢小弛인㊁三等二十圓二十錢四等十九圓九十錢

仁川下濊 日本期正米의軟弱을移하야 買方은氣乘薄이

朝取期米 · 東京短期取組 · 大阪長期 · 朝鮮內各地期米 · 大阪期米 ·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融 (四日)

海外經濟 · 朝鮮銀行券 · 日本銀行券 · 京城手形交換 · 東京金利 · 大阪金利 · 對外爲替 · 金價(一匁)

値	[illegible]

米穀 (四日)

京城正米 · 仁川正米 · 大阪正米標準價格 · 京城雜穀 · 仁川大豆

値	[illegible]

商品 (四日)

京城綿糸布市勢 · 京城人絹時勢 · 日本麥粉時勢 · 처카코期麥 · 고우時勢 · 豆油冲値 · 滿洲商況 · 大連特產時勢 · 豆粕冲値 · 大阪綿糸 · 大阪棉花 · 紐育綿花 · 日本各地期米 · 各地人絹 · 大阪砂糖 · 東京砂糖 · 海外砂糖

値	[illegible]

새해에 祝福드리나이다

今年도潑剌한元氣로지냅시다 森永의菓子는昨年보다도一層、여러분의健康을더함에必要되여菓子報國의使命을홀융히다ㅣ하고자합니다

菓子에도魂이잇다

여러분中에鶴見과塚口에잇는當社의工場을見學하신분은누구시나、最新機械의눈어지러운回轉과밝은工場中의띄껄하나업는淸潔함과衛生設備와、흰制服의女工악아씨네의快活하고敏捷한動作에、驚嘆하야주십니다。그러고、이러케까지『魂을너어서』만들지안으면、조흔菓子는되지안는가하고、嘆服하야주십니다。

當社는菓子하나하나에、그原料에서다될때까지의操作과包裝材料에까지森永이힘을다한生命과魂魄을너어서菓子를製造하고잇습니다。

森永이나은菓子의特性

森永쪼코레ㅣ트에는華麗하고新鮮한味覺과、氣魄을다한熱과힘과를너엇습니다

南國의魅惑 카카오빈스의가진情熱이、젊은靑春의近代生活에必要한明朗과快活ㅡ彈力잇는健康을맨듭니다

森永캬라멜에는 純眞한甘味와 넘치는元氣의榮養과를、包含하야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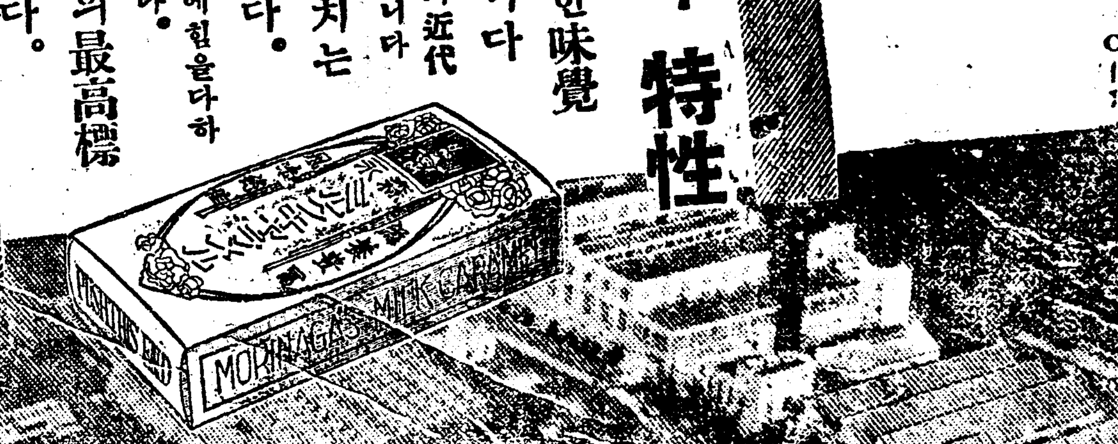
當社는三十五年間、品質의硏究設備의改良其他에힘을다하야愛兒를길러키우게큼、캬라멜을만드러왓습니다。

其他森永의名을冠한菓子는日本의最高標準品인故로好評을博하고잇습니다。

더욱菓子를먹읍시다

森永조菓子는여러분에健康과기쁨을드리는天使입니다。當社는今年도全力을注入하야菓子를만드러愛顧하심에報答코저하나이다

森永製菓株式會社



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고 아지노모도를 더욱애용합시요

아지노모도 味の素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鈴木商店

1—8

케부인화장에빠지지안는 박가분

京城府連池洞 朴家粉本舖

京城 金 地金銀 分析 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賣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番

本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〇五番

株式會社 漢城銀行

支店及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公州、大田、永同、大邱、釜山、陽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